東大新聞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제 1203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96년(불기2540년) 5월 27일 (월요일) 1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최순열
주간 이춘식
부국장 이익주
편집장 곽성영

펴낸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 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70-2057)

금주일언 남을 책망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스스로 몸을 살피기에 힘쓰라. 만일 이것을 안다면 영원히 번뇌를 멸하여서 근심이 없을 것이다.
〈법구경·쌍요품 159절〉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

21세기 중심대학으로의 발전 염원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선학)는 21세기 중심대학으로의 발전 염원과 전동국인과 사회각계각층의 관심과 성원을 확인하는 한편 대대적인 기금모금을 위한 행사로 '비전! 동국 1백년'후원의 밤을 오는 29일 오후 6시30분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본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한 후원자와 동문, 학부모, 일반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본교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전망을 밝히고 발전계획을 알려내며, 그 구체적인 실천의 기반이 될 재정적 후원 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교90주년기념행사중 하나인 이번행사와 관련해 1백주년사업본부는 오녹원 이사장과 송석구 총장 명의로 초청장을 정계 및 경제계 등의 유력인사를 비롯, 조계종단을 포함한 불교단체, 동문, 학부모 등5천여명에게 발송하였으며, 이미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황명수 총동창회장, 국회의원 최형우 동문 등 많은 인사들이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최창섭 MBC아나운서의 사회로 학교발전프로그램 소개와 영상홍보물이 상영될 1부에 이어 기금 약정행사와 유명 연예인 출연의 축하연으로 꾸며진 2부로 진행될 계획이다.

◇애국의 맹세!… 지난 24일 치뤄진 출범식을 통해 제4기 한총련이 닻을 올렸다. 사진은 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의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김희동 기자〉

보리수

염주(念珠)

요즘과 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루 종일 바쁘게는 살아 가지만 저녁때가 되면 무슨일을 하였는지 멍해질 경우가 있다. 새벽부터 쏟아지는 텔레비젼의 뉴스, 신문의 광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서재에 꽉 들여 찬 책, 해떨어 지기가 무섭게 번쩍이는 현란한 네온사인.

이 모두가 누구를 위하는 일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왜 있어야만 하고 갈수록 더 강한 표현을 써야만 될까? 이러한 것들은 나의 존재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참된 삶을 살아 가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아직도 판단이 서질 않는다.

이와같은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방법 중 하나로서 불자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생각하는 구슬" 즉 염주가 있다.

염주는 이름 그대로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통일 시키는 구슬이며, 나의 존재를 돌이켜 생각게 하는 구슬이다. 이는 본래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생각게 하는 구슬이다. 그냥 마음 속으로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몸과 말과 생각 즉 삼업이 하나가 되어 생각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므로 염불을 할 때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며 절을 할때 회수를 세기도 한다.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으로 돌기도 한다.

목환자경에서는 염주의 구슬 숫자에 따라서 1080주. 108주, 54주, 42주, 27주, 21주 등이 있으며, 재료에 의한 금, 은, 동, 수정, 목환자, 보리자. 연화자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번뇌를 없애려고 하거든 마땅히 염주를 늘 몸에 지니고 행, 주, 좌, 우에 있어서 항상 진심으로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을 염하라. 그리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며 일체의 장애가 없어지리라"고 하였다.

이러한 염주는 불교에서 시작되었으며 대승불교권인 중국에서는 당나라시대의 정토 염불자였던 도작(道綽:562-645)스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불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54개를 사용하면서 묵주라고 하며, 힌두교에서는 50개를, 이슬람교, 천도교, 원불교 등에서도 신앙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은 108염주 뿐만 아니라 짧은 단주나 손목에 걸고 다니는 합장주, 교통안전을 기원하는 차량염주 등도 장신구화 되어 유행하고 있다.

마음이 울적하고 의욕이 상실되었을 때,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고 싶을때, 다른 사람이 미워서 견디기 어려울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염주알을 한알 한알 굴려봄이 어떠 할까?

한 보 광
불교대 선학과 교수

계절학기 실시

건학이념 구현 과목도 개설

조기졸업이나 과락 등으로 학점 취득 기회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계절학기 수업이 오는 6월27일부터 7월19일까지 16일간 실시된다.

이번 계절학기 수업에는 교양선택 부분에 '산사의 생활(1학점)'과 '수영(1학점)'과목이 개설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산사의 생활'의 경우 2박3일 일정으로 사찰에서 수업을 가질 것이며, '수영'은 7월1일부터 19일까지 본교 수영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산사의 생활과 수영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에 한하며, 96학년도 1, 2학기 전과목에 대해 가능하다. 단 강좌 개설은 기준인원 1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다.(산사의 생활, 수영 교과목은 20명 이상)

정규수업 학점을 단 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계절학기 수업이 조기졸업 희망자를 비롯해 편입학생이나 전과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이 비싸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등록금은 한 학점당 7만원이다.

전한련 대정부투쟁 결의

한약조제시험 무효 주장

93년 한약분쟁이후,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전국한의과대학연합(이하 전한련)에 속한 한의대 학생회(회장=신진호·본2)는 한양조제시험 당일 경산대 3백 50여명과 함께 국가고시 시험장을 점거농성했으나, 대학생과 전경들의 저지로 강제 해산당했으며 이 와중에 5명이 부상을 당하고 1백여명이 연행됐다.

이들은 이어 한약조제시험의 부당성과 한의학이 올바로 나갈 방향에 대해 전한련측이 주최한 집회 및 선전전을 펼쳤으며 본교도 이날 경주지역 및 안강, 영천등지에서 선전전을 가졌다.

2만 5천여명이 응시한 한약조제시험문제와 관련해 전한련측 상임위원인 신진호 군은 "분명 한의사 국가고시와 한약조제 시험은 다르지만 정부는 이를 같은 수준으로 본다"며 "전한련측과 함께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한약관련 최종방침에 대해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며 의료일원화를 위해 한의학을 약학에 흡수 통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회의 반발과 더불어 전국한의과대학 교수회에서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소집하고 서울지역은 비대위측에서, 지방은 각 대학내에서 이번 사태에 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본교 한의대 교수들은 한약조제시험의 부당성과 시험출제를 거부한 본교 출제교수 박선동, 강병수 교수의 고발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현재 무기한농성을 벌이고 있다. 먼저 입장을 살펴보면 △한약조제시험 (19일)은 완전무효 △강병수, 박선동교수를 포함한 한의과 출제교수들의 고발철회 △현안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무기한 농성등이다.

무기한 농성을 하면서 한의대 박현국 학장은 "시험문제를 예상문제집에서 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국립보건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선동, 강병수 교수에 대해 "본교 교수들이 고발조치 된다면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을것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본교 교수들은 농성중에도 한약 조제시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약전공별로 대책을 강구중이며 한의학만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속한방병원 교수 15여명도 지난 12일 파업을 시작했으며 33명의 남자 수련의도 19일 한약조제시험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삭발했다.

그러나 응급수련의와 부속한방병원 15여명의 교수들은 병원의 환자들을 진료해야하는 관계로 파업중이지만 회진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합격자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한약조제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현재 양쪽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 감사결과와는 상관없이 한약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 심포지움 31일 개최

전문가 참여 정책 제시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및 환경보전' 심포지움이 오는 31일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환경부 후원하에 산업기술대학원(원장=김상규·토목공학) 주최로 개최된다.

바다의 날인 당일에 개교 9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환경 파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기술적 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회의원 박세직(국제환경문화원 이사장), 한국해양연구소 이수형 부장, 이상일 본교교수등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방향과 기술적 발전을 위한 명쾌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규 산업기술대학원장의 개회사와 송석구총장의 격려사로 시작되는 이번 토론의 주제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문정호 환경부 해양 보건과장 △유류오염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수형 한국해양연구소 부장 △유류오염 현황과 방제대책=이봉길 해양경찰대 방제과장 △유류오염과 해양환경개선=이윤 국립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해양에서의 유류오염 관측과 확산예측=이상일교수 △과학적인 해양오염 방지대책=강창구 한국기계연구원 해상안전방제 연구단장

'김윤호군돕기' 모금운동

서울캠까지 확산 계획

경주캠 이부대학(학장=김영재·경영학)은 지난 4월5일부터 오는 6월까지 교수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윤호군 돕기'모금운동을 한다.

이번 모금운동의 전반적인 현황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1백20여명 참가 2백70만원이 모금 됐으며, 이를 학교측에 전달했다.

한편, 모금방법은 직원인 경우 이부대 교학과 관계자가 직접방문등의 형식이며, 교수들은 개인이 직접 은행이 입금시키거나 이부대 교학과에 전달하는 형식이다.

이에 교학과 한 관계자는 "이번 모금운동은 교직원들의 호응과 참여가 많았으며 모금운동에 참여한 분들은 모금록에 성명과 금액을 기입하여 김윤호 학생에게 전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교수회에서 1백여만원을 이부대학장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교수회의 관계자는 "적은돈 이지만 김윤호 학우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선 "서울캠까지 확산해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캠 교무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연영학부 발전기금 기탁

CF출연 수익금 통해 마련

연극영상학부 동문 및 재학생들은 지난 21일 CF출연을 통한 수익금 1억4천9십1만5백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이번 기금은 홍학표(연영 88졸) 채시라(92졸), 김현아(95졸), 유하영(연영4), 홍경인(연영2) 등 5인의 '파리바게뜨' CF출연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CF출연 수익금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교수동정

▲허정식(정보산업학)=지난 5월 18일 울산대에서 개최된 '한국정보시스템학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함.

오늘 6시 수습기자 선발시험 있습니다

개교90주년 기념 동대신문사 기획광고

동국 사랑의 한 마음을 모읍시다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

참사람 열린교육
2006 동국 백주년

바야흐로 대학사회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동국은 끝없는 도전으로 최고의 대학을 추구해야하는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미래대학으로서의
동국으로 도약하기위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비장한 각오로 미래창조의 열정과 동국발전의
일체감 및 자긍심을 한껏 고취하고자 합니다.
개교 90주년을 맞이해서 동국 100년의 무한 가능성을 확신하며, 아무쪼록
동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국발전기금조성에
동참을 기다립니다.

참사람 만드는 열린교육
동국대학교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밤' 행사일정

일 시:1996년 5월29일(수) 오후 6시 30분
장 소:힐튼호텔 컨벤션 센터
참석범위:동문, 학부모, 불교계, 교직원, 그리고 동국을 사랑하는 사회인사
회 비:없음
행 사:홍보 영상물 상영
동국1백년 비전 및 플랜 발표
기금약정
축하공연
※행사당일(29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본교 교정에서 행사장행 버스가 운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개교 1백주년사업본부(Tel 260-37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 내용
·불교 종합 병원 건립후원 '원불봉안'
·등록금 한번 더 내기(동문)
·동국 21세기 발전기금(학부모 및 일반인)
·기타 특정목적 기부금 등

열린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1번게시판이나 ID: dgp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이기주의 풍조 배움의 장소까지

나보다 우리라는 의식개혁 필요

이기주의는 이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다. 집단이든 개인이든 이기심은 어떠한 어둠도 밝힐 수 없듯이 우리 젊은이들의 이기심은 우리 사회를 이 시대를 황폐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쓰레기들, 학교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담배꽁초들, 장소를 불문하고 가래를 뱉는 학생들… 너무나 친근한 우리들의 모습들 일 것이다. 특히 그 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친절하게도 리얼한 삽화까지 그려가며 삼류극장을 방불케 하는 한때(?)의 읽을거리, 볼거리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가보면 분명히 사람은 없는데, 자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모습들은 일상생활 주변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생활에 이기의 병폐가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나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과소비, 배금주의, 향락주의, 인명경시의 풍조 등의 모든 병리 현상들이 바로 이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의 배움의 장소마저 이러한 현상들에 충실히 길들어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기적 불감증에 의해 사회병패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여져 사회 전체의 안녕 보다는 권력과 재력을 지닌자들의 이기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서로의 이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죽으므로 저것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두 막대기가 서로 버티고 섰다가 이쪽이 넘어지면 저쪽이 넘어지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또한 서로서로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며, 하나도 상호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부정할 수 없는 공동체적 삶이다. 이런 삶속에서 우리는 나에게서 우리로 나의 것에서 우리 것으로의 인식의 전환과 나보다는 우리를 소중히 하는 의식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 평 재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한총련 출범식 또다른 나를 본 계기

아쉬움이 많았던 3일간의 행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 행사가 23일에서 25일에 걸쳐 전북대학교에서 2박3일동안 개최되었다.

나도 호기심과 기대로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출발하는 날.

점심을 늦게 먹느라 출발시간을 지키기 위해 허둥대야만 했다. 그러나 서두르느라 서둘렀는데도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선배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서 집합 장소에 갔는데도 대절한 버스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출발예정시각이 2시임에도 불구하고 4시20분이 되어서야 겨우 출발을 했다.

하지만 행사 일정에 어긋난 시각에 도착한 학교가 우리학교 뿐만이 아니였다. 대부분의 학교가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더 문제가 되는 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수의 이동이라는 이유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점점 지체되어만 가는 행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낮에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반성했고,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나 하나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두번째 날.

더욱 고조된 분위기에서 드디어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대운동장을 꽉 채운 학생들의 수와 그들의 진지한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고, 화려한 무대와 다채로운 문화공연, 열사들의 결의가 좋았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요즘에도 그처럼 많은수의 학생이 한마음으로 단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았다.

그러나 실망스러웠던 점은 학생들이 큰 일에는 신경을 쓰면서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쓰레기처리와 화장실 사용이 그 예이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쯤은 국민학생들도 다 알고 잘 실천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잠자리로 사용했던 종이상자들도 잠에서 깨고 나서는 나몰라라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화장실 사용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사용함을 감안하여 빠른 시간안에 깨끗이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서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이러한 작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연 지성인임을 자처하며 앞으로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행사 마지막 날.

뜻맞는 동기들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선배들과의 이별에 아쉬워하며 버스에 올랐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과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누구를 위해, 왜 존재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있는 대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았던 이번 행사였지만 스스로 나의 삶에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내년 출범식 때에는 좀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조 경 봉
〈문과대 독어독문학과〉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

남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대학인 되어야

여름이 다가옴을 알리는듯 햇살이 제법 따갑게 내려 비치는 어느 날오후 상경대 근처 잔디밭 주변에는 이번에 졸업하시는 선배들이 졸업사진 촬영으로 분주해 보였다. 그들을 물끄러미 보노라니 '저들 모두가 확실한 미래 진로 결정이나 취업보장이 되어있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히 떠올랐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고3이라는 입시지옥에서 벗어났으나 또다시 제2의 취업전쟁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즘 한창 상반기 취업·입사원서가 배부되고 있고, 대기업들의 입사전형이나 공무원 시험 공채 발표나 일정들이 나붙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4학년 취업 선배들을 위해 공직 설명회, 여학생 취업특강, 인·적성검사와 같은 일련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그나마 4학년 선배들의 관심분야일 뿐 1,2학년내지 심하면 3학년들까지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금의 우리 대학인들은 대부분이 나침반 없는 배처럼 방향 상실한 대학 문화속에서 뚜렷한 목표없이 떠밀려 가고 있는 듯 보인다. 단지 대학 4년을 이런대학 문화속에서 그저 그렇게 '가는 세월 누가 막으랴' '젊어서 노세'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시기인 청춘을 헛날려 버려서는 안된다.

유능하고 정서적인 대학인은 기본에 충실한 젊은이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런 젊은이들은 남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줄 아는 대학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양태를 파악할줄 아는 젊은이들은 인간을 최고로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따라서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의 상황을 고려할줄 아는 정말이지 인성이나 지성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 있는 젊은이가 될것이다. "진흙속에서 굴러다니지만 연꽃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훨씬 귀한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시사하고 함축하는 의미를 오늘의 대학인들은 음미해 보아야 할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임을 우리 대학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김 은 지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감동·가슴저림의 시간들

문화답사 통해 확인한 동기애

조금씩 날이 무더워져 강의실 수업이 짜증나던 어느날, 국어교육과 2학년 우리는 탈출을 시도했다. 바로 목, 금, 토, 일 3박4일동안의 문학답사. 떠나는날 아침 옹기종기 팔 정도 주변에 모인 동기들 얼굴이 강진의 영랑생가, 다산초당, 해남의 고산유택, 그리고 땅끝마을) 길에 올랐다. 문학유적지에 도착할때마다 조별로 발표수업을 준비하였는데, 뭐라 칭할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속에서의 수업은 그야말로 최고의 강의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어디 환상적인 수업뿐이었으랴. 3박4일동안의 뒷풀이 신화 또한 잊을수 가 없다. 한잔 술에 연애고민, 집안고민, 동기문제, 과문제 심지어는 첫키스의 추억까지도 자연스럽게 얘기되어 질 수 있었다.

아참, 잊을수 없는 또 한가지… 망월동묘역, 답사코스는 아니었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자 찾았던 곳이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수석이… 아직도 비석이 없는 그 민중이묘를 보면서 울던 나의 동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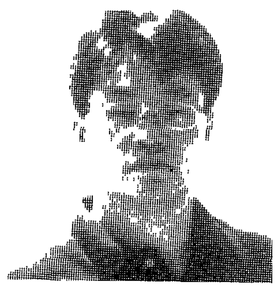
답사지역에서의 감동, 땅끝마을에서의 감탄, 3일동안의 환상의 섬(?)도, '망월도 묘역에서의 가슴저림도 우리 2학년 35명의 동기들과 혜숙이엄마가 함께 했었기에 더욱 값진 것이 아니었나 한다.

돌아와서 '얘들아 우리도 가고 싶지않니'라고 말하는 동기들을 보며 진정 내가 있어 행복해질수 있는 공간은 바로 국어교육과 2학년 우리 동기들 속임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 미 성
〈사범대 국어교육과〉

동/문/칼/럼

'예절'이 기본



시대가 많이 변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소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만이 진급이 빠르고 출세길이 열린다고들 한다. 그래서 학교생활을 할때면 학교유명세가 떨어지다보니 그저 성적만 잘 따놓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학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회에서 절실한 사람들은 단순히 학교생활을 잘한 사람만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은 개인 사생활을 펼치는 그러한 무대가 아니기때문에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쳐도 견디어 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원할 것이다. 그렇다고 학교 생활의 성적이나 성실한 생활태도를 매체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사회 생활은 원활한 인간관계와 다양한 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는자를 더욱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은 흔히들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말로써 표현을 많이 한다.

직장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실험장이다. 그래서 간혹 기본적인 것들이 그냥 간과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래서 상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하고 본인 스스로가 직장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한 것이다. 바로 누구든지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예절"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조직에서도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들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직장은 여러대학에서 가정에서 공부하고 자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생활들을 연출한다. 업무를 잘해서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이 기본생활을 실천하지 못하여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업무는 조금덜 인정받더라도 이 기본적인 것을 잘지켜 더욱 쉽게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자다.

나는 직장생활을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짧은 기간동안 느꼈던 바에 의하면 그렇다. 그러면 왜 후자가 중요한가?

그것은 이렇다. 이 기본적인 '예절"이 몸에 베어 나오는, 사람은 지금까지 지켜본바에 따르면 업무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그만큼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을 자신에게 맞추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몸에 베어있기 때문이다.

자신에 충실하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는자 될수있도록 자신의 관리에 신경을…

이러한 모든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기본적인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최 수 영
〈르·메이에르(주) ·농경제91졸〉

나기

▶그래 진짜 반대 해야해!!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를 사수하자.
▶경제적 측면에서는 찬성하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반대해야겠죠? 그러나 문화재도 보호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고속전철이 경주를 통과하면 우리모두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합시다.
▶기쓰고 반대한다고 달리고 싶은 TGV가 멈출까요?
▶경주도 구경하고 전철도 타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일이 아닐까요.
▶말 그대로 경주노(NO)선.
▶제 아무리 빨라도 빛보다 빠를소냐! 고향(古都)의 빛이여 영원하라!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우리 모자들은 분노하리라.이천년에는 참새도 천연기념물이다.
▶시민들의 집을 보수도 못하게 하면서 그런 무원칙한 것을 하다니.
▶명산명지는 피하면서 신라천년 고도인 경주는 피할수 없나?
▶아마 7, 8년후면 이것도 비리라 하면서 떠들썩 하겠지?

고 속 전 철

경 주 통 과 노 선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라 하면서 50여년 동안 지켜봤으면서.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가 모인 경주를 그렇게 무심히 결정하라니. 졸속행정 각성하라!
▶빠르고 좋잖아~
▶발전은 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더라도.
▶명산명지는 피하면서 신라천년 고도인 경주는 피할수 없나?

동/악/광/장

목떡골

◇ 축하합니다

■성년을 맞아 재원, 상근, 성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 같은 95 77년 Yul

■"끔" 생일 축하해
— 佛 Me

■전·통 P4 예비역 신유진의 복학을 추카해요.
— 편송천

■제8 바람소리회원 여러분의 처녀 비행을 참마음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멋진 바람순이, 바람돌이 되어주십시오.
— 3차원 안드로메다에서

■인·철주점(Soma) 성공리에 마친 것. 축하! 축하! 축하!
— 나툼이

■성년을 맞은 신방과 학우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길
— 신앙 95長

■불·미 선배님들 졸업작품전, 정말 축하드려요. 작품이 너무 멋있었구요.
— 불·미 96

■법학과에서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해요.
— 法 '93

◇ 수고하셨습니다

■예비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면제(민방위)일동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청년 붓다들의 한판 어우러짐 '불교도 주간', 힘차게 치루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불장

■종길이형!
학생회실 페인트칠 하느라고 수고했어요. 너무 멋있다. 폴장 같아서.
— 종길이형 Killer

■「자주공대」한총련 출범식 참가단 여러분! 3박4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제18대 자주적 공과대 학생회

■동대신문사 한총련 출범식에 다녀오신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사장님, 형철부사장님, 나름이, 꼬시미, 만듬이, 알리미, 바텐더… Soma를 위해 애쓴사람 모두 모두 수고하셨어요. — Soma

■손짓사랑회 10, 11기 임원단 and 사랑동이 여러분 하루찻집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어느 법대 사랑동이가

■제11대 총여학생회 여러동지들!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 선배

◇ 그리고…

■종원이뭇!
Rock concert, 멋졌어요. 최민수보다 뭇이 더멋졌어요.
— 인·철 나르미

■동국대 순수미술 동아리, 그리고…그림.
제9회 소품전 성공리에 끝내다.
— 유나&진국

■토목공학과 김영우학우의 기사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 대광동문회

■사회90 손영우형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 노동해방의 철의 기지 혁명 새·사·연

■이과대 BBS개설!
telnet sciver2, dongguk, ac, kr→ Login ID: ibrain

■대동대 보성동문회 5월31일 금요일 모두 모두 참석바랍니다.
— 동문회 부회장

■모두 동원훈련받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언제 한번 정기모임으로 情을 느껴봅시다.

■함께 만나 웃어봅시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늦은 5시에 불상앞에서.
— 부산가야·중앙여고 동문회

온방골

◇ 축하합니다

■현진&성희!! 축하혀. 청춘시절의 마지막 생일 무지무지 축하한다! 사랑해
— 전통 1004

■1976.5.27이날 국문학과 킹카 유선이가 태어난 바로 그 날 피 끓는 젊은 가슴으로 축하한다.
— 터프양

■제14회 경서대회를 무사히 치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님들·임원단 모두에게
— 해로비 4

■관경학부 관광리서치센터내 취업국 발족을 축하합니다.
— 최

■경상학부 96학번 홍콩가는 새내기 이정현! 생일 축하한다!(안실어주면 돌아가심!!)
— A특공대 일동

■C·Y·M의 생일을 축하해~ 용
— 사랑스런 옥이가

■우리 '소낙비'의 축구부 '뜨르러시즘'탄생을 축하축하 합니다.
— 7기

■늦었지만 친구 영민이생일(5월23일) 축하해 주세요.
— S

◇ 수고하셨습니다

■한울인 여러분! 축제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B기 귀염둥이들 '성년식' 고마웠어.
— 한울회 12기 일동

■항상 좋은 기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문사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 자연대의 93

■학회지 만든다고 고생하신 선배님들이하 나의 사랑스런 동기들아! 정말 수고했어!!
— 이방인

■동아리 농촌봉사활동하느라 고생많으셨죠.

■가정교육과 동문 17기 부기장 주수언! 부기장으로 정말 고생 많고 우리 concert 정말 잘 해보자응?
— 17기 자경

■중앙선전단, 인문과학부 G반 및 자연과학부 C반 진짜진짜 수고했다.
— 총회장

◇ 열심히 합시다

■문인이 오빠! 멀리 캐나다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지? 끝까지 열심히 잘하고 돌아오길…
— 동생이

■사랑하는 동국음악회원 여러분! 결전의 콘서트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힘내시고 열심히 열심히 해보자구요.
— 17기 수언 띄움

■경영학부 A반, 동음 17기중 꽃 구자경! 항상 열심인 너의 모습은 보기 좋아요.
— Blueshu

◇ 알립니다

■R·O·T·C후보생 활동사진전 5월27일에서 31일까지 학군단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택견 4기 5월31일 단합대회 있습니다. 많이 모이세요. 택견 화이팅!!
— 종환

■5月28日 17시30분 백상탑에서 대구 협성·경일 1학기 마지막 동문회 합니다. 많이 모입시다.
—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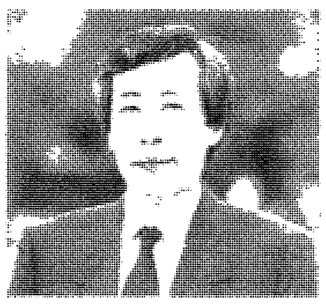
■28日부터 31日까지 과대항농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바랍니다. 농구부 화이팅!
— 숙이랑 윤이가

◇ 그리고…

■민영아 군대 안가니? 간다고 한적이 언젠데 아직 안가고 학교에 남아있니? 빨리 좀 가라.
— 훈

■네가 주막에서 고생을 하다니!! 창우야 너무 사랑해
— 日文 문순

국회의원들, 철새습성 버리고 정당정치 자각할때



박 종 훈
문과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시사논단

개원정국과 정치권의 과제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면서 활발히 움직여야 할 정치권이 여당의 당선자영입작업에 대한 공방으로 어수선하기만 하다. 개원협상도 아직 착수하지 못한 채 정국이 강경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과연 법정개원일에 국회가 제대로 열리기나 할지 의문스럽다. 과반수의석 더 나아가 상임위의 안정운영을 위한 1백65석의 확보를 겨냥하며 '당선자 빼내기'를 계속해 온 여당과 이에 맞서 여소야대를 고수하려는 야당의 대치는 이제 여당의 과반수확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정치권은 성숙한 모습의 정치를 보여주기는 커녕 구태의연한 '밀어붙이기식'권력놀음만 연출해와 국민들을 식상케하고 있다.

그동안 여당인 신한국당은 당선자가 스스로 입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계속 과반수이상의 의석확보 추진을 공언해왔다. 물론 현행법상 지역구당선자가 당적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당선자를 영입하는 정당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숫자만을 채우려고 그것도 개원도 되기전에 무차별적으로 영입을 하는 것은 신한국당 자체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뿐아니라 정치권의 혼란을 초래케 한다는데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러한 영입과정에서 압력이나 허유가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정당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소지가 될 것이다.

한편 야당은 신한국당에 의한 여대야소의 형성은 국민이 선택한 결과를 인위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여왔으며 야당의 이같은 분노에는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신한국당의 당선자영입자체를 불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헌법소원까지 내고 있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회의원은 대표자(representative)이지 단순한 대리인(delegate)이 아니다. 즉 국회의원은 일정한 정당이나 지역권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대표자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모두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이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이 중점적으로 문제삼아야 할 것은 당선자가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당을 옮길만한 어떤 필요요건이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적변경자들의 부당성을 논파하면서 여당이 부당한 압력과 회유로서 영입을 강요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어 대처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역시 당적변경 당선자들의 자세이다. 법률적으로는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당선자들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는데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국회의원당선자가 당적을 바꾸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처럼 빈번하지는 않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데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해명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할 대표적 상황으로는 기본원칙에 있어서 자신과 소속정당사이의 차이가 극명할 경우를 들 수 있다. '에드먼드 버어크'의 말대로 정당이 국가이익을 위해 원칙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일단이라고 할 때, 원칙상의 차이를 계속 감내하는것은 정당정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은 당적을 바꾸는데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정당을 옮길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지역구주민은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납득할만한 정도로 충분히 해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비록 선출되긴 했지만 당선된 후에는 국민의 대표자로 되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 여당의 당선자영입작업이 개원정국을 파행적으로 몰고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데서 일차적으로 여당의 책임이 크며 이런 점에서 여당은 이제부터라도 더이상의 무리한 영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제까지의 영입작업에 대해서도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자영입과 그에 따른 정국의 파행성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당정치의 후진성과 국회의원의 자립부족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당들이 공당으로서 합리적으로 정책대결을 벌이기 보다는 보스중심의 사상적 이익에 지나치게 골몰하여왔으며,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기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에만 급급하여 참새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단순한 '숫자 채워주기'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이다.

각 정당들이 공익을 앞세워 합리적으로 정책대결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사명감에 따라 행동한다면 선거후 당선자의 당적변경요인은 그만큼 줄어들것이다. 사상적 보스정치의 청산과 국회의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국회위상의 재고야말로 향후 정치권의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96년도 임금투쟁 진단

"임금인상 근로조건 향상" 쟁점 부각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노동환경 개선돼야

4·11총선을 전후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96년도 상반기 임·단투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노총 출범이후 계열노조들은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향상을 내걸며 투쟁에 돌입해 노·사 양측은 많은 마찰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9일 '96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한 조합원, 가족 결의대회'를 가져 임금인상에만 집중하던 노조활동에서 벗어나 사회개혁을 주도한는 노조로 나설것과 94년 단협에서 96년 6월1일부터 월급제를 실시키로 한바, 구체적인 도입방안검토를 최대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사측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에서 지급, 전임자 수를 현재의 44명에서 21명으로 축소, 조합비 일괄 공제 폐지, 노동쟁의시 일방중재권 적용등 34개 조항의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으며 노조측에서는 "사측의 개정안은 현수준의 단협을 후퇴시킨 개악안으로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단협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40시간 노동, 노조의 작업중지권 확보등 48개 조항의 단협 개정안을 사측에 전달한 상태이고 월급제등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간 이견차이를 좁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일 부산역 광장에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노조탄압 분쇄와 단협쟁취 결의대회'가 4백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산도개공 파업 37일, 상공회의소 파업 11일째에 대한 투쟁경과 보고와 서종수 사장·강병중 회장 퇴진, 사업사태의 원만한 해결 그리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를 탄압하는 흔한 그러나 치명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의 활동을 위축, 무기력화시키는 것이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시계문자판을 생산하는 경남 마산소재 한국산본은 올초부터 임금체불과 무쟁의 선언 강요 등으로 노사간 심각한 마찰을 빚어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조가 져야 한다"는 사측과 "민주노조 씨말리기 작전의 일환은 고소고발, 손·배상청구등을 회사측은 철회해야 한다"는 노조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전 노조간부 10명의 징계방침과 고소고발 및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탄압의 정도는 공공부문노조(한국통신, 서울·부산 지하철 의료보험조합, 철도청 등) 또한 마찬가지이다.

통신주권 수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외치던 한통노동자들을 국가전복 세력으로 몰아 구속했고, 지하철·철도노동자들의 시민 안전확보 활동과 근로조건 개선활동때에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며 노조민주화 활동을 억누르는 실정이며 서울지하철 35명, 철도청 59명, 한국통신 31명등 2백50여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실지 해고됐다.

이에 오는 6월2일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개최를 위해 전조합원은 구체적 조직과 준비에 한창이다.

전임자 축소분쇄, 고용안정, 실질임금 쟁취,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철폐, 교사 및 공무원의 단결권확보등 6대 공동투쟁 목표를 확정해 김정권이 개혁적 의지로 내세운 '신노사관계'의 기만성 폭로에 공동의지를 모을 예정이다.

최근 제2의 분신정권을 창출했던 한국합섬 사태는 지난 13일 목숨을 건 투쟁으로 노조측이 승리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형사처벌 대상자는 복직시킨다. △회사는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 △본 사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은 즐소와 함께 퇴진한다 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재한 문제는 많이 존재한다.

이 모든 투쟁은 노·사 양측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제는 전체 노동자와 자본가·김영삼정권의 투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정세전반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두번째로 대중선동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세째 연대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하며 끝으로 올해 성과물들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상반기 투쟁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을것이라 예상되지만 국민 모두는 노동자의 선진화에 주목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계속적인 투쟁을 끝까지 펼쳐나가야 할것이다.

〈송선영 기자〉

사설

대화합 이루는 '후원의 밤'을

21세기를 앞두고 대학들이 저마다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시대적 요청과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자각과 그 실천적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다. 우리 동국도 바야흐로 도약과 중흥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

학교당국은 이미 규모있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통일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최첨단 과학기술공학단지 중심의대학 타운을 일구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또 학부제 실시·다전공이수 및 전과기회 확대 등 혁신적인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제도의 개혁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적 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이 원만하게 수월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따라주어야 한다.

이제 대학의 존망은 바로 재정확보와 경영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모든 대학이 재정확충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벌이고 있다. 숫제 대학 총장은 판촉사원이나 다름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학교발전과 경영의 염원, 그 책임이 몇몇 학교당국자에만 국한된 일이겠는가. 전동국인이 분발하고 쇄신된 자세로 분연히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일이다.

금번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학풍진작과 발전적 기풍을 세우기 위한 여러행사에 동국인들의 관심과 동참이 한결같지 않았음을 직시할 때, 학교발전을 위한 대화합의 기운이 아직도 충천하지 않음을 우리 모두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인식에 있어 비판적 입장 표명과 허심탄회한 논의 구조, 시책에 대한 엄밀한 검증, 독선과 편견에 대한 문제제기와 견제 등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비생산적인 시비와 힐난으로 이어지거나 외면과 방관으로 드러나서는 안된다. 서로를 탓하고 우기다가 대의명분과 실익을 다 잃지말고, 적극적으로 화합하고 동참하여 이 난국의 다리를 건너가는 '다리위의 두 염소'의 우화에서 지혜를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에서 오는 29일 열리게 된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 행사는 그야말로 동국미래를 열어나가는 대화합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국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결집시켜내는 이번 행사가 바로 동국중흥을 위한 대동단결의 나팔을 울리는 장엄한 진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동문·학부모·교수·직원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과 동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학교발전을 소망하는 뜻을 모아 성과있는 기금확보의 결과로 맺어줘야 할 것이다. 나부터 먼저 한자루의 촛불을 밝히듯 동국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동국만평

강 성 수

◇ 한약분쟁— 엇갈리는 합법화와 전문성

정부의 이중적 법규정으로 극단 대립 초래

너도나도 한약사…분명한 법적용으로 전문성 유도해야

한약분쟁과 현 한약조제시험 사태의 불씨는 두가지 법조항이 제공했다.

"약국에서 재래식 한약장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삭제— 1993년 3월5일

"약사면허 소지자와 약대 재학생은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는 약사법 개정부칙— 1994년 7월8일

전자의 조항은 93년 한약분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 조항이 93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되자, 양단체는 삭제조항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며 강력히 대립하기 시작했다.

한의계는 "75년 76년도 국회가 '약사한약취급금지' 촉구결의를, 80년에 수용했으나, 93년에 일정한 공고없이 정부가 삭제했다"며 "약사의 한약조제권금지를 나타내는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비전문 약사의 한약조제가 가능해지며, 이후 나타나는 국민건강악화의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그들은 "한약은 한·양이 분화된 상황에서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반면 약사회는 "삭제조항은 단순히 약사의 청결의무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며 "삭제 이전에도 약사들에게 한약조제권이 약사들에게 있었다"고 밝히며 91년 헌법판례를 예로 들었다.

93년 3월4일 본교 한의대생의 상경집회가 시발점이 된 한약분쟁은 전국 한의대생 4천여명의 2백일간의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과 한의대 교수 2백여명의 국회집회, 더 나아가 전국수련의 사표제출 사태까지 몰고 갔다.

이 사태는 93년 9월 비전문가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합의안을 양단체가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됐으나 당시의 합의안도 양단체의 미묘한 쟁점에대해서는 비껴간 불완전한 체계로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양단체에 치어가며 뚜렷한 고민없이 94년 약사법개정안을 시행, 또다른 분쟁거리를 제공했다.

94년 7월8일 시행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원칙 △한약사제도 신설 △예외적으로 약사에게 한약조제 기득권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항 중 분쟁거리가 되고 있는 내용은 "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범위가 1천명 대 4만5천명으로 양단체의 견해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는 "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개정전에는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따라서 개정이후에도 4만5천명 약사 모두가 최소한의 법적권리(시험응시의 자격)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계는 "약사의 기득권 인정부분은 약사법 시행당시 한약을 음성적으로 다루고 있는 1천여명에게 시험응시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취지에서 나왔다"며, "당시 정부도 소수의 시험응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후속조치는 "94년 7월을 기준으로 1년이상 한약을 조재한 약사에게만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었으며 이후 조사를 펼쳐 전국 9천2백76개소를 확인했다. (신청자의 92.3% 합격, 1년전과 비교했을때 3배이상 늘어난 수치임)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헛수고로, "현행 법규상 약사면허소지자에게 시험응시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19일 2차 한약조제시험서 2만5천명 약사가 응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법 규정의 미온한 대처가 자칫 1만여명에 육박하는 약사의 한약조제가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한의계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약조제약사 시험의 파행적 출제와 응시인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만약 지난 19일 출제된 시험에 의해 다수의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갖을 경우, 현 한의사 8천명을 훨씬 넘는 한약조제 약사가 배출되어 한방의 존폐위기로까지 비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한약조제약사시험의 출제를 두고 한의사협회는 "약사계가 시험문제를 파행적으로 출제 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약조제약사시험 1백20문항 중 1백1문항(84.1%)이 "약사회 추천 정선 본초학, 정선한약방 제학, 정선한약조제지침문제집에서 나왔다"며 "한 과목당 한 문제집에서 출제하고, 동일하거나 보기만 바꾸는 등 과행적 수법을 썼다"고 말하고 1백20시험문제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했다.

반면 약사협회는 "사슴의 뿔은 녹용"이라는 공개된 시험문제는 출제도 되지 않았으며, "약대교수와 한의대교수 공조체제속에서 선정하는 문제 중 본초학과 한약조제지침서는 합의를 보았고 방제학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며 한의대 교수들의 15일 출제장이탈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약조제시험과 관련되어 파생된 사태는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5월11일 전국 한방병원 수련의 연합(전수련)파업, 15일 전국한의대생 연합(전한련의장= 김효진·경희대 한의대학생회장) 총파업, 17일 한의과 대학교수사퇴와 진료거부 결의, 19일 7백명 한의대생의 시험저지 집회, 22일 전국 약대생 연합(전약협)수업거부 등에서 나타나듯 93년이후 최대 위기상황을 맡고 있다.

본교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12일부터 26명 교수들이(진료를 병행하는) 파업에 들어갔으며 경주, 인천, 동국한방병원 남자수련의 33명이 전원 삭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 역시 15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국한방병원의 구병수교수는 "학생들의 집단유급의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에서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 동참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급위기에 몰려있는 한의과 학생회의 송인광 기획부장(본과2)은 "유통체계의 혁신과 의료보험의 개혁을 한의계 역시 생각하고 있으며 진정한 발전은 한방의 전문성을 인정할 때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한조시와 관련된 한약분쟁은 이후 한조시의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 인원수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한의계와 약사계는 자신의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분쟁중 전문성의 측면은 국민건강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전문성 인정여부에 따라, 한약분쟁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약사협회는 "한의대의 한약관련과목 중 주당 강의시간이 38시간인 반면에 약대의 한약관련과목은 주당 1백23시간"이라고 밝히며 "전문적인 소양은 약사에게 오히려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양방은 한방은 기본적 취지부터 다르다"며 "약학계의 한약관련 과목은 화학식으로 추출해서 분석하는 것인 반면 한방의 한약은 성질과 기능을 통해 조제하는 고차적인 측면"이라며 "93년 이전까지 약대내 한약관련 강좌개설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는 한약분쟁중 간과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약사법 개정의 유명무실화가 되버린 현사태의 결정적 공헌자는 정부라는 점이다.

정부의 미온적 법규정에 대처는 한약사 배출이 필요없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사태발생이후에도 사탕발림식 '한약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어쩌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발발된 한약분쟁을 '국민건강 악화' 측면으로 걷게하는데 제일 큰 공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누리 기자〉

◇ 성지순례— 5·18의 자취를 찾아

역사의 현장 파헤쳐 골프장 건설 버젓

유가족의 눈물···피해자 보상·명예회복 시급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오월 그 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5·18 민중항쟁 이후 16년이 흘러 5월은 또 다시 찾아왔다. 5·18특별법 제정, 전·노의 구속 이후 맞는 기념일이라 광주 광역시와 5·18 행사준비 위원회가 함께 기념행사를 준비 하는등 처음으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자리였다. 이처럼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오월을 맞은 광주의 표정은 단순한 축제 분위기만은 아니였다.광주시민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특별법 제정은 지난 15년간에 민중들의 끈질긴 투쟁의 성과로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이것은 문제해결의 종착점이 아닌 15년간 묻혀왔던 5·18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의 매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왔다는 광주 시민 김성삼(28)씨도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투쟁의 열기가 전국적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열기가 많이 식어 아쉽다.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전남대에서는 윤한봉씨의 '그간 5·18 투쟁의 평가와 앞으로 과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윤씨는 5·18민중항쟁에 참여, 15년간 수배자로 망명생활에 있다가 작년에 귀국해 현재는 민족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이 강연을 통해 윤씨는 '역사에 맡기자던 김정권을 특별법 제정으로 추동 견인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그동안 투쟁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내란 및 학살 관련자 감형, 사면 예방 △5·6공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촉구 △전·노 일당 재판 끝나기 전 미국정부에 책임추궁 △5·18 국가 기념일 제정 등을 제시하고 '5·18민중항쟁은 12.12군사반란 이후 5월 27일까지 이루어진 모든 항쟁을 말하며 광주만의 문제로 지역화 시키는 것은 그 의미를 축소 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국화 시켜 내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기념행사준비위원회는 각종 행사와 더불어 항쟁 당시 격전지 현장과 유적지를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마련했다.이번 성지순례는 망월동에서 시작됐다. 망월동 입구에는 16년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 유족들의 눈물이 지키고 있었다.얼마전에 안치된 고 노수석 열사를 비롯해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망월동. 순례단의 발길은 엄숙했다. 순례단은 다음날 가장 먼저 공수부대가 파견됐던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최초의 총기사용 희생이 있었던 계림동 사거리,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구 공용 터미날, 왜곡보도로 시민들에 의해 전소됐던 구 MBC 건물, 항쟁 지도부 상황실이었던 도청과 시체 안치실이었던 상무관, 시민 총기 사용 교육장이었던 YMCA, 항쟁 중 모든 시위가 연결되었던 금남로와 군사훈련을 하던 광주공원등을 거치는 동안 당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었다.

순례지중 마지막 장소는 당시 영창과 법정으로 사용됐던 상무대였다. 5개월간 이곳에 수감돼 있었던 5·18민중항쟁 동지회 감사 김공휴(37)씨를 만났다. '민주화가 무엇인지 알아서 싸운 것이 아니였다. 단지 살기 위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들고 도청을 지켰을 뿐이었다'로 말문을 연 김씨는 아침에 멀쩡하게 불려나가 저녁이면 들것에 들려 들어오고 열배가 훨씬 넘어가는 수용인원과 다섯 숟가락도 안뜨고 끝나버리는 식사가 일상이였던 수감생활을 '개·돼지만도 못한 생활'로 표현했다. '지금도 그때 일로 인해 안정된 기반을 잡아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다.당시 고문으로 인정한 내죄목만 살인, 강간, 국가내란 등으로 여섯가지나 된다. 난 국가내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는 그의 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또 김씨는 '국가적인 행사라고 말은 하면서 5·6공 시절과 같은 진압에 기념행사가 전국적인 보도도 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면 차라리 망월동에 묻혔으면 이런꼴 보지 않고 편치 않았을을 텐데'라며 5·18 16주년을 맞는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순례지로 상무대를 방문하고 나오는 순례단을 뒤로 바로 옆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중장비의 소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5·18민중항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우리에게는 여전히 청산해야할 군사정권의 인적 잔재, 경제구조, 법·제도적인 측면과 5·6공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금남로에 남아있는 민중들의 함성과 피내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양지연 기자〉

동악로

어머니의 눈물

'놈들은 전·노 같혔응께 좋겄다 한디 우리같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좋아. 그래봤자 고급으로 입히고 맥이고 목욕시키는디. 법정에서 그놈들 뻔뻔한 꼴 보면 울화가 치밀어서…'

아들의 묘지 앞에서 하얀소복을 차려입은 김양애씨는 아직까지 북받혀 오르는 감정에 말끝을 잇지 못한다.

'학생들이 가끔 이런 농담을 해. 전씨가 사형됐다고 삐삐가 왔다는 거여. 아직 진상규명이 안되았어' 얼마전 집회때 무릎을 다쳐 거동이 불편한 김씨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린다. '어머니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갈수가 없네요. 내일 아침 일찍 갈께요'라는 말을 남기고 도청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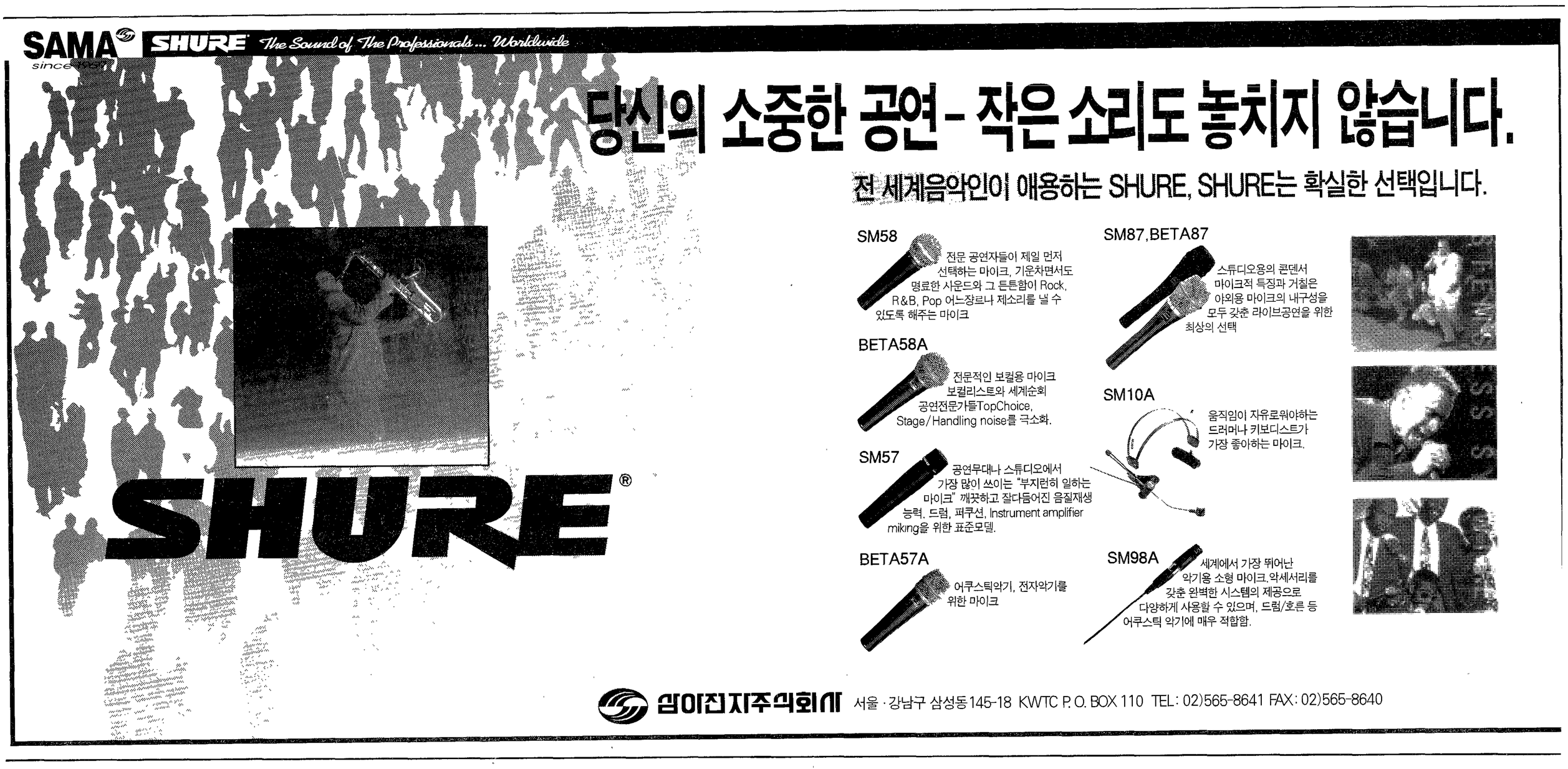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사망한 아들을 쫓아 화병으로 4년뒤에 사망한 아버지를 제외하고 현재 어머니와 형, 여동생은 '5·18유족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병규.동국대학교 1학교. 5·18기념일을 맞은 망월동, 김씨앞에 있는 묘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다. 고 박병규 선배 복원을 위해 노력해온 '청산과 계승을 위한 동악인의 모임' 회원 이승민(사회과학계열1)군은 '민주화를 위해 목숨바친 아들의 명예회복과 5·18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마음아파하는 어머니께 명예졸업장마저 없는 서러움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과 함께 '지난 89년 한 선배가 박병규 선배 이야기를 꺼낸후 흐지부지 됐던 명예졸업장을 이번에는 꼭 안겨 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쑥쓰러운 미소를 짓는다.

'동국대학교 학생 맞재? 야가 그 학교 다녔어. 지는 배웠응께 민주화를 위해 싸웠겄지. 목숨을 걸고 싸운거여. 다른 무덤에는 다 명예졸업장이 있는디…'

5·18 기념일을 맞아 갖가지 화한과 추모 메세지가 놓여있는 아들의 무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아쉬움의 눈물이 맺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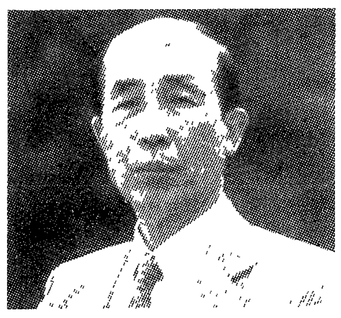
〈양지연 기자〉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불교학술 세미나—'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

불교인, 순교자적 자세로 불교의 역할 증대시켜야

종교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현 사회에는 여러가지 종교가 존재하고, 이들 종교간에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에 지난 17일 열린 불교학술세미나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의 상황을 불교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편집자〉



권기종교수(불교학)

불기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본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 불교학)주최로 불교학술 세미나가 지난 17일 동국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열렸다.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라는 주제로 발제강연에 이어 네명의 교수는 주제발표를 했고, 여기에 다시 열띤 토론이 뒤이었다. 송석구총장을 비롯하여 4백여명의 동참으로 성황을 이룬 세미나를 소개한다. 먼저 주제 발제강연에서 권기종 교수는 "한 국가사회가 종교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아니면 특정종교만을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다종교적 현상을 갖기 마련이라하여, 하나의 통치권 안에서 여러 종교가 자유롭게 그 종교적 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각기 종교가 가지는 자기만의 독특한 진리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교인도 그가 어떤 종교를 신봉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신념체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

그러므로 다종교 현상은 종교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진리성 주장과 신념의 체계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것이 대립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그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각 종교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기독교와 카톨릭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지에 관하여 불교적 입장으로서 제시했다.

그에 대한 예로서 기독교와 불교의 관계를 내세워 최근에 일어난 몇가지 사례들을 밝혔다. 이것은 도저히 종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선교라는 이름아래 행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가운데 휴거를 주장하는 말세론적 종말론에 관한 유인물과 녹음테이프가 불교사찰과 신행단체에 뿌려졌다는 것을 비롯해 사찰내 국보급의 문화방화사건들을 제시했다. 한편, 기독교의 불교 공격은 불교를 미신이라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 예수는 신이요, 석가는 인간이라는 주장 등을 밝혔다. 이와 반면에 불교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물론 같은 진리체계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악마나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같은 발제를 통해서 모든 종교는 이해와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서로의 특징을 인정하고 그 독립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는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위상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본 타종교와의 관계

김영태교수(불교학)

이어 두번째로 주제발표에서 김영태(불교학)교수는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본 타종교와의 관계'라는 주제하에 불교역사에 있어서 일찍이 다른 종교를 어떻게 대하고 또 다른 종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왔는가를 한국이라는 역사 테두리 안에서 간략하게 살폈다.

우리나라에 불교의 공식적인 전래(공전기년)를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보다 훨씬 앞선 1세기쯤 전의 일로 보았는데 그러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 "단군설화에 보면 그러한 하늘 님을 환인(천제석)이라 하였고, 그 아들을 환웅이라 일컫는 것에 두었다. 그리하여 불교는 종래 신성시하던 산의 신명을 산왕대신, 집집마다의 주신을 조왕대신, 생명을 점지한다고 믿었던 별(영성)을 북두대성, 칠원성군 등으로 각각 자리매김해서 부처님의 도량내에 안치하여 산왕단·조왕단·칠성단·정법을 수호하는 권속이 되게하였다"고 한다.

그와 같이 자연신 숭배의 신앙현상을 자비와 지혜의 종교성으로 품어 안아서 조금도 이질감없이 민족정서에 조화되고 동화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가 끝날무렵 고구려말에 개소문이라는 실권자가 권력의 힘으로 도교를 수입해옴으로써 비로소 우리겨레 역사에 종교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종교적 갈등이나 마찰이라기 보다는 도교를 받아들인 정치권력에 의하여 불교가 핍박을 받게 된 사실이었던 것이다. 이 후에도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불교는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드러냈다.

정부정책의 종교편향성 시비와 불교의 대응

세번째로 최창술(선학)교수는 '정부정책의 종교편향성 시비와 불교의 대응'이란 주제로서 다양한 종교의 의미를 논했다. 서구에서는 신의 명령에 대한 불복의 뜻으로만 죄를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비교종교학적인 입장에서는 신성한 질서를 이탈하는 일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불교는 최종적이고 극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불교의 근본진리를 파악함으로써 피안에 도달한 궁극적인 지고의 경지를 종으로 표현했고, 그러한 최고의 사실을 보여주면서 중생들을 모두 피안을 향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연기론적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현정부에서의 편향을 내세우며 인욕의 한계를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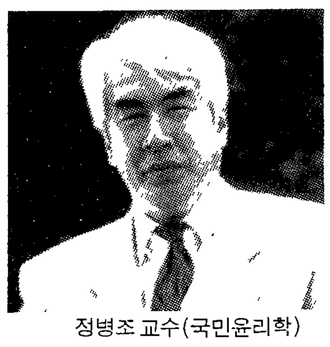
그에 이어 한 통치권자나 위정자들의 망언이나 가벼운 행위가 단연코 일과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상설 교단 외호기구의 설치가 급선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고급인력 양성이 급선무라고 본다.

최창술교수(선학)

가족구성원간의 종교적 불화와 그 해결

네번째로 정병조교수는 '가족 구성원간의 종교적 불화와 그 해결'이란 주제로 한국인의 종교수용태도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해방이후 현재까지 한국기독교의 비약적 발전은, 바로 이와 같은 현세이익성의 강조 때문이었다고 보았으며, 한국인은 그가 기독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간에 그 심성의 밑바닥에는 기복성이 잠재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의 문제는 한국인의 기복성이 이기적일 뿐 아니라 현세중심적이라는 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한 제시로서 가족들간의 종교적 갈등, 무엇이 원인인지를 종교갈등의 본질적인 문제는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부재'라고 보았다. 그러한 문제들은 종교성직자들에 대한 상호 종교의 외형성 비교를 문제점으로 내세웠으며 또한 상호종교의 진리성에 대한 우월성 논쟁을 제시했다. 가족 구성원들의 종교갈등이 대부분 관념적이라 하였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간의 종교적 대화가 필수적이라 하였다. 끝으로 목정배(불교학)교수는 '종교다원사회에서의 한국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현대 사회처럼 언어의 성찬이 만개한 시대는 없었다며 언어가 표현될때는 그 의미가 명확하여야 하고, 또한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여실하게 개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다원주의(Pluralism)라는 것은 일원론, 이원론보다 뜻이 광범위하게 내포된 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가 종교를 이해하려는 종교학자에게 발언된 것도 기이한 일이라 보았다. 불교적 원리는 하나이면서 모두이다. 즉 화엄의 원이리며 육상원융의 무진연기여서 우주의 모든 법계는 총체적인 모습임과 동시에 개체적 성질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원이란 말은 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대해 원효의 '지법요기'를 통해 나를 일원으로 보고 남을 다원으로 보면서 깊이 살펴보며 어떤 해답을 얻고자 했다. 원효는 자아의 행위가 최상의 것이고, 남을 절대적으로 비하하는 오늘날에 와서는 음미할 과제라고 했다.



정병조 교수(국민윤리학)

목정배교수(불교학)

종교다원사회에서의 한국 불교의 역할

다원의 세계와 일원의 세계를 별리로 세워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 상황으로 융섭하여 자신보다 타인의 행복을 헤시하려는 교세대비적 일심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원이란 가면을 쓰고서 일원을 속이는 연극은 막을 내려야 하고, 일원의 참 마음으로 다원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관적 비시행(慈觀的 悲施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다섯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네 명의 토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또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서윤길(불교대학장)교수는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 궁극적인 진리라는 것은, 결코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닌 이상 융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궁극적으로 융합되는 최선의 종교적 화합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차선의 화합과 관응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어 홍사성(불교TV 편성제작국)국장은 "그 차선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기독교의 배타성과 비관용성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을 먼저 불교인들은 잘 알고 임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 화합의 방법론을 정립하는데 있어, 회피나 묵인의 분위기를 내재해서는 결코 아니됨"을 아울러 지적했다.

다음 박선영(교육학과)교수는 "조선후기 개항시 불교와 서양 종교 사이의 접촉과정"을 김영태교수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산중 불교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약해진 불교가 그 어려운 상태에서도 강대한 서양 종교와의 관계에서 능동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므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암시를 얻고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러한 토론을 바탕으로 최후에 토론에 나선 이봉춘(불교학과)교수는 "결국 불교도 힘을 키워야 하고 나아가 비법·탈법·불법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응을 보여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늘 보살의 자비에 입각한 대응이어야지 나찰의 험악한 공격성에 입각한 전쟁이어서는 아니됨을 전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앞날은 현상태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교의 앞날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모든 불교인들의 피와 땀이 새로운 차원에서 쏟아 부어져야 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불교인들이 순교자적 자세로 불교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불교의 진로일 따름이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모아진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부)

원룸+빌라+호텔+오피스=정품빌라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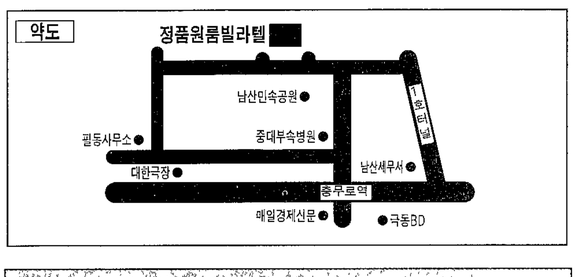
멀티라이프의 신세대 곧, 슈퍼맨생활이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신세대인 우리들이 일하고, 꿈을 펼치는 시대다
차세대에서 뜨려면 외국어실력의 탁월함, 컴퓨터가 기본생활의 도구....
해야할것이 많다 . 때문에 시간도 체력도 전략적으로 계획관리 해야한다
남은 대학생활과 취업을 목표로하고 있는 기업도 서울 도심에있으니까 생활이 편리한주거공간이 필요하다. 가구, 전자제품, 모든편의시설이 공간활용과 품격높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하고 토지지분도 많은 투자성도 높은 원룸빌라텔을 부모님께서 구입해주셨다
위치도 끝내주는 곳이다 남산의 맑고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민속공원이 있는 필동. 학교에서 5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정품빌라텔이 등하교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야! 그 시간을 나는 학과공부와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어 자신감과 여유가 생겼다

첨단주거문화창조와 양심을 고집하는 기업
(주)정품리사이클링건설

정품원룸빌라텔공급개시

평 형	공급금액	임대금액	세 대 수	전용면적	토지지분	비 고
12 25	89,985	49,000	2	30 24	19 70	단위 천
	103,230	55,000	2	〃	〃	면적 m²
13 70	100,795	55,000	1	33 84	22 04	
	115,631	62,000	1	〃	〃	
16 03	117,830	64,000	4	39 60	25 80	
	135,465	72,000	4	〃	〃	
17 05	125,475	68,000	1	42 12	27 43	
	143,943	77,000	1	〃	〃	
42 54	358,938	191,000	2	105 72	68 86	

· 위 치: 서울시 중구 필동2가 84-9호
· 접수방법:선착순
· 구비서류·계약금, 주민등록증, 인장
· 입주일자:현재입주가능
· 융자금액·분양가의 50%까지 가능
(융자금만으로도 구입가능)
· ※주변토지 평당단가 900만원이상
(각 가구당 토지지분 분양면적의 2/3이상 등기됨)
· 취득세, 등록세감면:전용면적 40m² 미만 100%감면
40m²~60m²미만 50%감면



분 양 문 의
278-7458, 278-8470

◇본사 주최 제34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결과

◇입선자 명단

시

장원:'하늘' 남혜정(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3)
우수1석:'하늘' 김민영(부평여자고등학교 3)
우수 2석:'하늘' 김혜진(계남고등학교 2)
가작 1석:'새' 김화영(안산강서고등학교 2)
가작 2석:'새' 최은정(명여여자고등학교 1)

수필

장원:'눈썹' 이화진(서산여자고등학교 2)
우수1석:'가장 미웠던 나' 곽문경(영동고등학교 3)
우수2석:'가장 미웠던 나' 장인자(대진여자고등학교 3)
가작1석:'가장 미웠던 나' 김선미(안양예술고등학교 1)
가작2석:'가장 미웠던 나' 김은(서라벌여자고등학교 3)

소설

우수1석:'사진 한 장' 곽상희(안양예술고등학교 3)
우수2석:'사진 한 장' 김보경(복자여자고등학교 3)
가장1석:'사진 한 장' 공지혜(엄광여자고등학교 2)
가작2석:'병실' 정수연(정의여자고등학교 3)

◇심사위원

시:김선학(문학평론가·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윤석성(시인·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순열(시인·사범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수필:고재석(문학평론가·사범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준성(법정대 법학과 교수)
소설:홍기삼(문학평론가·문과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한용환(소설가·사범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본교 개교 90주년 기념 본지 창간 46주년 기념

오월과 아카시아꽃냄새 그리고 젊은 문학의 잔치

소설 우수 1석 -사진 한 장

곽상희(안양예술고등학교 3)

곱슬머리를 날리며 자전거를 탈때면.
동네 여자아이들이 빼꼼히 대문을 열고
훔쳐 보기 일쑤였다.

솔냄새다. 엄마는 오늘도 솔내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다. 하얗게 튼 얼굴에 실핏줄이 선 눈매문에 켜졌한 피부가 도드라져 보였다.

"오늘은… 아무일 없었니?"

엄마가 현관을 들어서며 늘 묻는 말이다. 나는 비틀대는 엄마를 부축하다가는 눈가의 주름을 세어보았다. 동생의 사고 이후로 생기기 시작한 주름이었다. 엄마는 동생 혼자 방으로 발을 향했다. 혼자는 자고 있었다. 별무늬가 그려진 이불을 머리위까지 뒤집어 쓴 채였다. 엄마는 털썩 주저앉아 하루종일 물과 씨름해서 퉁퉁 부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이불을 내려 혼자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불길이 멈춰 이그러져버린 동생의 얼굴은 눈을 감아서인지 동화책에 나오는 괴물같은 모습으로 비쳐졌다. 겨우 숨을 쉴 수 있을만큼의 크기인 콧구멍 두개만을 남기고 붕어 입술은 쪼글 코와 틀니를 빼놓은 노인처럼 입술은 조글조글 오므라져 있었다. 엄마 눈에는 금새 물기가 고였다. 맨정신으로는 혼자를 못보겠다면서 장사를 마치고 날마다 술을 먹고 오는 엄마였다.

"오늘 가게에 다리 아픈 사람이 왔는데 …씨비스 많이 줬다"

엄마는 조그만 한식집을 하신다. 내가 국민학교 입학하던 해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시작한 일이었다. 동생 혼자, 혼식이 5살, 3살 때였다.

나나 동생들은 구김없이 자랐다. 특히, 혼자는 성격이 밝아서 어디서건 인기를 독차지했다. 곱슬머리를 날리며 자전거를 탈 때면 동네 여자아이들이 빼꼼히 대문을 열고 훔쳐보기 일쑤였다. 동그란 눈은 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뽀얀 피부는 여자인 나보다도 예뻐졌다. 그의 눈에서 총기가 사라지고 뽀얗던 피부가 번데기 껍질처럼 변한 것은 6년전이었다. 혼자 집에 있던 그는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불을 켰다. 순식간이었다. 알콜램프 재미로만 가득차 있던 그의 집에 자갈이 깔린 것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시간과 같았다. 혼자에게서 웃음이 사라지자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웃음도 점차 사라져갔다. 엄마전에 그는 가출을 했었다. 집에 있던 비디오를 들고 나갔다. 몰아올 때는 몰이 반쪽으로 말라있었고, 손에 비디오는 들려있지 않았다. 동생을 봤을 때 가슴 한켠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말했다.

"왜 들어오니? 죽여버리지, 왜?"

그는 눈을 감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를 붙들었다.

"혼식이란 귀여워라고 살게?"

내팽을 물리치고 그는 세게 문을 닫았다.

혼자와 혼식은 어릴 때 사이가 좋았다. 둘 다 기집애처럼 이쁘장해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 혼자와 사고가 있은 후로 사람들은 혼자를 꺼려했다.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었지만 그의 손이 닿기라도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을 쳤다. 송충이처럼 붙어있는 손가락이었다.

"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어린 혼식의 조그만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이었다. 혼자는 동생을 격투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침대에 엎어놓고 밟기도 하고 머리를 벽에 내동댕치기도 했다. 웃음대신 집을 메운 것은 혼식의 어리광 흐르는 울음이었다. 누나인 나도 혼자와의 접촉이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동생들을 데리고 영화구경을 갔을 때였다. 오동통한 혼식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유난히 빨리했다. 혼자는 검은 아구모자를 푹 눌러쓰고 조용히 우리 뒤를 따라왔다. 사람들 시선이 자꾸 우리에게 모인 것 같았다. 뜻밖은 밝게만 느껴졌다. 그는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왜 쳐다봐, 이 새끼야"

길거리 전화박스 앞에 줄을 서 있던 젊은 사내가 놀란 눈을 떴다.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었다. 사내는 동생을 본 것이 아었다. 혼자는 계속 욕을 내뱉었다. 사내는 동생의 등에 대고 사납게 말을 했다.

"병신, 골값하네. 도둑 제 발 저린다니."

사내의 말은 좁은 골목에 울려퍼지고 동생은 모자를 더 깊숙히 눌러썼다. 그 병원 앞을 지나다가 혼자가 입을 열었다.

"사고나고 처음 여기로 왔지, 누나?"

나는 모자가 만든 그늘에 가려 보이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나는 벌컥 소리를 질렀다.

"네가 죽으면 엄마도 우리도 죽어."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누나… 예뻐."

그의 거뭇한 눈가 밑으로 물방울이 맺혔다.

그러나, 동생은 계속 떠들어져 갔다.

엄마 친구가 전화를 했다. 송수화기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줌마의 말이 귓속에서 벙벙 맴돌았다.

"혼재녀석, 거지애들이랑 다니는 거 아니?"

아줌마의 목소리는 칼칼했다.

"고것들이 오늘 우리집 담을 넘어 들어와서는…, 세상에 혼재가 시켰다지 뭐니, 우리집 텁자고."

욕실 바닥에 깨진 거울의 파편들이 힘없이 뒹굴었다.

… 혼재의 발바닥에 유리가 박히고 그 사이로

검붉은 피가 줄줄 흘러나왔다.

손 안에서 송수화기가 미끄러져 내렸다. 나는 성급히 혼재의 방문을 열었다. 웃가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성냥개비 몇개가 떨어진 바닥을 지나 갈색 나무책상에 손을 댔다. 만화책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다. 만화 표지에 그려진 그림들은 모두 괴물같은 인상의 남자들이었다. 책들을 들춰보다가 빨간 가죽 표지가 눈에 들어왔다. 앨범이었다. 앨범 속의 동생은 생긋생긋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뽀얀 피부에 총기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 사고 이후 찍은 사진들은 모두 갈기갈기 찢겨 앨범 속을 떠돌고 있었다. 그가 떠도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는 그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눈에 괄이 하나 더 패일 뿐이었다.

한동안 동생은 방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가끔 목을 쥐여짜는 듯한 찢어진 소리만이 갈색문을 통해 전해져왔다.

"오리려 잘됐어, 뚜있는 거나 해줘라."

가게를 나가며 엄마가 던지는 말이었다.

"가게에 잘오는 아가씨가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 손발을 아예 못쓰거든. 화장도 곱게 하고. 컴퓨터도 배운단다 요즘. 우리 혼재는 언제…."

엄마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잘될꺼예요. 걱정마세요."

갑자기 평그랑 소리가 들리더니 동생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는 욕실로 달려갔다. 나는 시은방을 닦으며 그를 따랐다. 욕실 바닥에 켜진 거울의 파편들이 힘없이 뒹굴었다. 그의 찢어진 사진처럼 여기저기 떠돌면서 그의 발에 채였다. 혼재의 발바닥에 유리가 박히고 그 사이로 검붉은 피가 줄줄 흘러나왔다. 현관을 나서다 고무 슬리퍼를 다시 벗고 뛰어온 엄마는 발을 옮기다 바닥에 미끄러졌다. 흰 양말에 핏물이 배고 평퍼짐한 고무줄 바지가 쭉 흘러내렸다.

"그래, 죽자 죽어, 같이 죽어."

엄마는 동생을 붙들고 흔들었다. 그는 흐르는 피를 조용히 보고만 있었다.

"너만 힘드니? 나도, 나도…"

핏물과 눈물이 섞여 욕실은 흐트러졌다. 욕쟁욕쟁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졌다. 방울방울 울려내려오는 맑은 물방울이 동생의 파충류같은 피부에 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가 마디마디 붉은 손등이 손을 내밀었다.

"혼재야…."

엄마의 거친 손이 그의 손과 겹쳐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욕실로 들어와 엄마와 동생을 끌어안았다.

소가 후라이팬을 들고 서있는 평크색 바탕을 간판이 보였다. 간판을 바꿔야겠다는 엄마의 말에 동생이 제안한 모양새였다. 바깥에 빈틈이 되어있어 가게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여닫이문을 밀고 들어가자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코로 스며들었다. 엄마는 주인인데도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큼직한 놋구릇을 벗어던지고 가겟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한구석에서 식사를 하던 단발머리의 여자가 그를 쳐다보았다. 입가에 웃음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엄마가 물기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주방에서 나왔다.

"우리 큰아들이에요."

엄마 손에는 동생의 머리가 닿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많이 자랐다. 아가씨가 급어 오르려진 팔을 휘둘러 동생을 붙었다. 그녀는 손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고운 분이 칠해져 있었다.

"이번에 스키캠프라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혼재는 동그랗게 눈을 떠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짓고 그에게 말했다.

"누나는 다리는 못쓰지만 스키는 선수급이란다."

그는 이식 수술을 받느라 짝게되어 빡빡이인 머리를 더듬으며 입을 크게 벌렸다.

"제 운동 정말 잘했요"

그의 말에 그녀는 무릎을 급히 그 힘으로 일어서며 말했다.

"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동생은 그녀를 벌떡 들어 가게 한쪽 자리에 서있는 휠체어를 옮겨주었다. 엄마는 꽃무늬 앞치마를 들어 눈을 닦고는 싱긋 웃었다. 흰색 도자기 화병에 꽂힌 장미꽃은 입을 크게 벌려 밝은 빛을 더해주었다.

제34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참 가 기

제34회 고교백일장이 본사 주최로 지난 18일 본교 교정에서 열렸다. 참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나에게 좋은 글이 다른 사람 눈에 나빠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난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좋게 봐주길 원한다.

■글써줄시다.

'이런 글쓰기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쓰면 이건 좋은 글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좋은 글은 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글이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좋은 글은 자신을 좀더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좋은 글이라 평가되는 기준이 몰까 항상 궁금해요. 자기가 쓴 글이라면 잘난 빼고는 다 자랑스러울거고 좋은 글이라고 자부할텐데. 어떤 규격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좋은 글이다 아니다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답은 그 규격을 찾아내는 사람은 좋은 글로 평가받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겠죠.

■백일장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언어제조기도 아닌데 동국대 너무 했다. 너무 시끄러워서 시장 바닥에 온 거 같애요. 내년에도 와서 이러면 동국대 욕할 시킬 꺼.

■우리 교감 빼졌다. 수업 빼먹는다고. 글자상이라도 들고가야 할텐데 나 하나만 주면 안돼요?

■아쉽다. 글마무리나 잘할걸. 내가 동국대를 다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국대는 관찰은 대학이다.

■배고프다. 당선되면 고맙죠.

■친구들도 보고싶고 집에 빨리 가서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정이랑 나랑 좋은 결과 있었으면.

■처음부터 난 아니라고, 난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후의 내 기분은 아마 모를 것이다. 체념을 위한 미련.

■장원되서 상타는 생각

■겨우 써서 냈다. 역시 시라는 건 너무 어려워. 박에선 데모를 하는지 너무 씨끄럽다. '불교대학'이라해서 절간(?)분위기를 상상하며 왔는데… 그리고 … 안내하는 오라버니가 너무 잘 생긴 거 같았어.

■같이 응모한 친구가 못 왔서 그 친구 몫까지 잘했어야 할텐데… 랍나서 시원섭섭(!)

■상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 다만 여기 왔다는 것에 만족한다. 입선한게 어디야?…

■시간이 짧아서 시 쓰기에도 바빴어요. 시간 좀 길게 줘 잉~

선생님, 친구들… 기대가 큰데 잘됐으면 좋겠다.

■노래실력이 너무 빵점이야. 밖에서 들는데 오뤽…

■대학생 오빠 하나 Catch할까 해서… 근데 는 씻구 봐도 없드라.

■마음을 비운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동네 사람들은 D-J DOC를 좋아하더군.

■장원해서 낭랑한 내 목소리로 시낭송 하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그 기회를 미뤄야 겠다. 기대하시고!

■시가 좋다…

시가 너무 쓰고 싶었다. 그래서 동대에 왔다.

■나두 진경이 만나러 왔는데, 못보고 그냥 가네. 아쉽군.

근데 서울이라 그런지 사람도 차도 건물도 크고 많다야. 내년엔 내가 여기로 꼭 올거야 기다려라 동국대야!

■여자 친구 사귀게…

■나도 글을 잘 쓴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있어 무언가 끈끈한 매력, 보람, 희망을 확인하고 싶었다.

근데…

■조오타! 백일장도 나오고 수업 빼먹고… 아쉬운 건 시간 있으면 한번 더 다시 쓰고 싶다는 것. 경험이도 입선했는데 차오로 학교에 홍보가 안되어 같이 못 왔다는게 아쉽다.

근데 백일장도 있는데 거긴 포기하고 이리로 왔다. 잘 썼나 모르겠어!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인생에 대해 논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심사평

시

백일장 출품작은 산뜻한 감수성과 재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시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출된 시 작품들도 이러한 장단점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작품들은 정감의 처리와 시적 사유 등에서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 중에서 심사자들의 주목을 끈 것들이 최은정의 '새', 김화영의 '새', 김혜진의 '하늘', 김민영의 '하늘', 남혜정의 '하늘'이었다.

최은정의 작품은 시적 집요성이 돋보였으나 정리가 부족하여 가작2석으로 했고, 김화영의 작품은 참신성이 돋보였으나 기교에 흐름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작 1석으로 정했다. 김혜진의 작품은 참신한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2석으로 했고, 김민영의 작품은 균형미를 높이 평가하여 우수1석으로 정했다. 남혜정의 작품은 모국어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때묻지 않은 상상력이 특히 높이 평가되어 심사자 전원일치로 장원으로 결정했다.

김선학(문학평론가·인문대 국문학과교수)
윤석성(시인·인문대 국문학과교수)
최순열(시인·사범대 국어교육학과교수)

수필

제목인 '가장 미웠던 나'와 '눈썹'은 내면과 외면, 심리와 외모라는 대립항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은 진부하기 이를데 없어 무척 실망스러웠다. 아마도 아는 경험량이나 독서량의 부족, 아니 궁극적으로 문학적 상상력이 결여된 탓이 아닐까 생각된다.

좀대 학생들의 관찰력과 성찰력, 나아가 현실화에 대한 치열한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

대구나 작품을 보면서 외국어투 문장이 남용되고 있으며 문단나무기나 정서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산여고(2) 이화진의 '눈썹'은 시종일관 독자들을 이끌어당기는 탄탄한 구성력과 깨끗한 구어투 문장의 활용, 뛰어난 심리묘사를 통해 '잘 다듬어진 눈썹'과 '때어낸 그대로의 눈썹'나아가 '일탈'과 '정시'의 내면 모습을 소녀 특유의 세계에서 포착한 점이 돋보여 장원으로 뽑았다.

영동고교(3) 곽문경의 '가장 미웠던 나'는 워크맨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앞에서는 허황된 심리 또는 허욕에 불과하다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잡게 그리고 있어 우수1석으로 뽑았다. 대진여고(3) 장인진의 '가장 미웠던 나'는 아버지에 대해 애정과 애증이 교차하는 내면심리를 잘 묘사하여 눈에 띄었으나 비문(가령 수동태 과동태 명사형 문장의 남용)이 많고 감수성의 과장된 몸짓이 감점요인이 되어 우수2석, 안양예고(1) 김선미의 '가장 미웠던 나'는 순수한 소녀의 반성하는 내면이 버성항기처럼 심그러워 가작1석, 서라벌·김은의 '점점밟이 할아버지'는 진부하고 어디서 본 내용(예:사랑의 작은 선물)감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진지하고 솔직하여 가작 2석으로 뽑았다.

고재석(문학평론가·사범대 국어교육과교수)
이준성(법정대 법학과교수)

소설

소설을 문장으로 제시되는 이야기라고 보는 관점은 소설을 이해하는 무리없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리고 이야기란 담연히 흠미있게 사건이 발단하고 발전한 끝에 경이롭게 해결에 이름으로써 심리적 구조를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소설을 쓰는 이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울러 독자가 작가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는 자명해진다.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지만 그것은 충족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심사위원들은 동감했다. 한마디로 사건다운 사건이 없고 그것의 경이로운 발전은 더더구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문장이 무난한 작품들은 없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독자를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은 뿐이다.

순위를 정하는데 좀시 곤혹스러웠다. 좀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써보기를 권유한다.

홍기삼(문학평론가·문과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한용환(소설가·사범대 국어교육학과교수)

시 장원 — 하늘

남 혜 정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3)

외눈만 뜨면 뵈지 않는 것이
정한수 재인 달빛을
눈이 시게 어르다
까치밭 딛어 아슬한 하늘…….

오월의 다복한 잔치 마당에
깊은 밤 까맣 눈동자
회계 그을려
화장히 일기가 풀리고
노오란 분 냄새 까슬하게 돋은
개나리꽃은 아니리

목구멍 치미는 초여름의 더위를
겨우 삼키고 서야

연초록 잎새에 진땀이 베이도록
매운 눈을 비벼
보배로운 인내를 닦아내니
연분홍 색시 볼 살며시 붉히는
소박한 꽃이어라

입술로 피고 지는 말이 없어도
온몸으로 닮고 닮은 정한 한마디
젖은 향내로 새기노라면

이슬비 덧신 신고 내리는 햇살이
부산한 나들이 갈 채비로

오색 꿈을 몰아
매끄러운 몸매 늘이는 단장을
꾸리나니

약속도 기리지 못한 님을 향해
굽이치는 잰 걸음
가리울듯 드리운 이내 진실을
놓아

사뿐이 따를 제오며
님 보시기 좋아라
겨드랑이 가볍게 들려 누비는
춤사위
다소곳한 모양새로 감추일진대

한 시절 만발하다 시들어
자취 없을
그리움은 아니리
처음 땅이 열리고

풀 뿌리 쓴물 저리고 저민
구리빛 진실을
질포름이 새겨 님을 비추오리라
꿈 길을 걷듯 하늘을 오라
손짓하는
라일락 꽃이여

우수 1석 — 하늘

김 민 경
(부평여자고등학교 3)

당신은
항상 열려있는 문(門)입니다.
마음만으론 날수없는 세상에서
삶의 힘겨움을 느낄때
두드림없이 들어가 쉴 수 있는 둥지 입니다.

당신은 빼론
회초리든 어머니 이십니다.
온세상이 흔들릴만큼 많은 울음을 만드신 후에
맑은 당신의 얼굴에 나를 비추일때면
언내 나도 잘이 출제하시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어느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연인입니다.
언제나 곁에 머물면서 잠재주고
그저 바라만봐도 힘이되는
마음속 깊은곳에 자리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많은것을 주시어 느끼게 하십니다.
무형의 자태와 흔들림없이 한결같은 정신
당신을 향한 마음은 노래가 됩니다.

당신을 닮고픈 나는,
오늘도 쉼없는 날개짓을 합니다.

수필 장원 — 눈썹

이화진(서산여자고등학교 2)

"아, 너 니 필통을 좀 살펴봐"

"왜?"

"우리반에 도둑 들어 왔었나봐."

"그래?"

5교시 가사 실습을 마치고 교실에 돌아와 보니 모든 반 아이들이 계속 욕을 하면서 각자 가방을 살피느라 교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교실을 비운 사이 누간가 들어와 아이들의 필통을 뒤져 콘을 몇 개씩 가져갔다는 것이다. 나는 참고서를 사려고 했던 3만원부터 찾았다. 다행스럽게도 그대로였다. 필통속의 샤프심 하나까지도 그대로 였다.

"난 괜찮은데?"

"어떤 인간이야? 치사하게 돈은 그대로 구 켠만 가져갔어"

그날 하교길에 친구와 내내 그 치사한 도둑에 대해 생각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분실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했기에 그 도둑을 이해했다. 언젠가 고3연나가 그랬었다. 시험 때가 오면 신경이 예민해 져 심하면 도벽까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고달픈 입시준비에 심각한 정신병에 걸린 한국의 고등학생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었다.

한동안 분에 차 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화를 가라앉히고 있을 쯤.

"화끈이! 너 그 도둑말이야, 글쎄 네 친구 혜영이가…"

"아니야, 걔가 뭐가 부족해서 치사하게 애들 켠을 훔쳐…"

"네 친구였으니까 믿는 마음 이해는 하지만 걔네만 애들이 그 시간에 화장실 다녀 온다고 하고 나갔다. 한참 후에 켠 한 주먹 들고 들어왔대."

"예이, 장난치지마"

친구를 도둑으로 몰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야 할 내가 그렇게 웃으며 장난치지 말라고 넘겨 버린 건 애써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럼 네가 그 애 반에 가서 필통 봐야주 끝내준다니깐? 켠론스럽게 학교 갖고 다녀."

TV에서 아무리 철저한 범인이었더라도 물증앞에서 머뭇거리는 건 봤지만 막상 증거를 대는 아이들 앞에서 흔란스러운 나의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집에 함께 가는 친구에게 난 그 이야기를 했다. 혜영이에겐 미안하지만 나도 50자루 넘게 가둬둔 켠이 든 필통을 봤다고.

"그런 지금은 우리 시험이잖아? 우선 시험준비하거 끝나면 직접 확인해봐. 예전에 네 앞에서 언제나 정직했잖아. 핫소문일 수도 있고, 핫소문이라면 더 며져서 혜영이 마음 상하기 전에 도와줄 수도 있고."

시험기간동안 북도에서 마주치는 혜영이를 보면 당장이라도 묻고 싶은 걸 참고 웃으며 인사했다.

그 상황에선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막상 발길이 향하지 않았다. 그 애 주위엔 무서운 아이들이 있었다.

작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한달 쯤 지나 선생님께선 변호순으로 앉은 대신 여러 친구도 사귈 겸 변호가 적인 좋이를 뽑아 그 자리에 앉자고 제안하셨다. 종이를 뽑기전 난 주위를 둘러봤다.

뒷쪽 끝자리엔 다듬어진 눈썹을 가진 아이 한명이 있었다. 모두들 처음 태어난 그대로의 눈썹을 가졌는데 그애만 유독 다듬어진 눈썹을 하고 있었다. 불량학생이구나. 그애는 나의 옆자리변호였다. 학교생활 애로워지겠구나.

며칠을 난 그애의 다듬어진 눈썹이 신경쓰여 제대로 쳐다 지도 못했다.

어느날 쉬는 시간 신입생에다 학기초라고 를 잡고 책상에 앉아 다음 시간 예습을 하고 있었다.

"야! 너 중학교 때 우리 얼반이었지? 켠소 말하고 싶었는데… 너 착한 것 같아"

"아니야, 너가 더 착해. 너에 비하면 난 불량학생이지 뭐"

"너 나 무서워? 나도 예전엔 착하단 소리 좀 들었어 나 너처럼 되고 싶은데 도와줄래?"

나는 마음이 열려서라기보다는 그애 눈썹이 또 그 즉시 그려졌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앤 눈썹을 길렀다. 나에겐 대답나위 없이 친절했고, 우린 함께 정석을 했다. 그애는 누가 내앞에서 조금이라도 거친 말을 하면 화를 내며 떠밀었다. 우린 친구였다. 하지만 학교밖엔 다듬어진 눈썹을 가진 무리가 있었고 가을쯤에서 우리집에 자주 전화가 왔다. 그애의 부모님께서 그애가 있는 곳을 알려 달라고… 가출을 2번했다. 첫번째 가출에서 난 그애를 찾아 집으로 데려갔고, 두번째 가출때 내가 가지 않고 그애의 부모님께서 다녀 오셨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그애는 다듬어진 눈썹을 하고 나타나 눈썹을 치켜 세우며 화를 냈다. 시간이 흐르고 함께 웃긴했지만 난 무서웠다. 그애란 그저 인사로만 지내게 되었고 난 말이 고민했다. 그런 고민을 하는 내게 엄마께선 그애는 애초부터 너와 다른 아이였으니 내 할일에 열중하며 차차 잊으라고 하셨다.

며칠 전 몸살난 몸으로 난 책상위에 엎드려 있었다. 일어나보니 책상 귀퉁이엔 나의 안부와 회복을 바라는 50가지 켠으로 쓰인 켠지가 놓여 있었다.

난 아직 그애에게 답장을 쓰지 못했다. 다듬어진 눈썹을 계속 보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다시 나와 같은 눈썹으로 돌아올 그애에 대한 기대로.

뒷쪽 끝자리엔 다듬어진 눈썹을 가진 아이 한명이 있었다.
모두들 처음 태어난 그대로의 눈썹을 가졌는데
그애만 유독 다듬어진 눈썹을 하고 있었다.

우수 1석 — 가장 미웠던 나

곽문경(영동고등학교 3)

분무기로 물을 뿜듯 비가 내리고 있다. 빗방울이 몸에 달을세라 창살거리던 염소들은 주인이 데려 갔는지 푸릇푸릇한 풀밭이 허전해 보인다.

언제 이렇게 변해 버렸을까? 산비탈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던 하얀 배꽃은 자취를 감추고 초록빛 잎만이 비를 맞고 있다.

3학년에 올라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실에서 사는 나에게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느끼게 해 주는 이 앞산마저 바라볼 여유를 잃었던가!

새학기가 시작되고 석달째에 접어든 요즘 나를 몰려 싼 모든 것들이 귀찮기만 하고 내 대신 이 시기를 살아줄 누군가가 있으면 하는 하루맹랑한 바람마저 들곤 한다. 내가 너무 약해진 탓일까? 이번 주엔 창가에 앉게 되어서 그런지 자꾸 창밖을 보며 딴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리 지루한 수업 시간이라도 저 산과 시내를 보고 있노라면 산뜻한 마음이 생기곤 한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리 비에 젖은 산을 봐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는다. 게다가 옆에선 짝궁이 워크맨으로 영어 듣기인지 뭔지에 정신이 팔려 있어 더욱 그렇다.

요즘들어 워크맨 없는 친구들이 없다. 모두들 몇 그리 열심히 듣는지 잠담도 안하고 등교길이건 교실에서건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있다.

당연히 나도 필수품이 되어 버린 워크맨을 가지고 싶어, 부모님께 사 달라고 부탁드렸지만 허사였다. 아빠께서 하시는 부동산 중개업이 잘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게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말을 소외시킬 수 있는 걸까?

엄마의 말씀을 빌리자면 친구들이 서울 간다면 나도 간다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건 억지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것도 모르시고…

오늘 아침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옷장을 열어 보니 블라우스에 다림질도 되어 있지 않았다. 난 마치 누군가를 취조하는 사람처럼 다짜고짜 엄마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말의 버릇없는 행동을 보며 엄마께선 아무 말씀도 없었다. 옆에 계시면 아빠서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네 시녀라도 되니? 이제껏 해준 것만도 감사할 것이지…"

하고 호통을 치셨다. 그래도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라도 다림질을 해 놓은 건데 너무 했다. 그러나 엄마께서 감기몸살이라는 사실은 내 염장을 없애 버렸다.

아간학습 다녀와 씻고 잘기 좀 써볼까 하면 지장이 넘는다. 이렇다 보니 양말 한켤레도 빨 생각을 않고, 세탁기에 던져 버리기가 일쑤이고 주말이면 쉬어야 한다는 핑계로 쉽게지 한번 도와드린 기억이 없다.

그래도 소리없이 내 뒤치닥거리를 하며 어렵게 하면 날 기쁘게 해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는 엄마에게 내가해 준 거라곤 퉁명스런 말들과 지난 어버이 날에 거의 의무적으로 달아드린 카네이션 한 송이가 전부다. 이런 나에게 감기로 붉그레해진 얼굴을 하시고, 도시락 챙겨 주신 엄마에게 새삼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엄마의 상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카세트로도 충분한 영어듣기쯤가 같은 건 할 수 있는데도 겉멋에 이끌려 워크맨이나 사달라고 조른 내가 부끄럽다. 지겹다고 입지 않는 옷들을 기꺼이 받아 입는 엄마도 계신데…

이래선 안 되겠다. 세상 일은 마음먹기에 달린 법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니 행복에 겨워 투정부리는 내모습이 철없게만 느껴졌다.

고3이 뭐 대수인가? 괘그리 조급하고 속없이 살았는지. 사실 3학년이라고 달라진 건 마음에 여유를 잃은 것뿐이다.

지금 밖에 있는 저 나무들도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열매를 맺는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아무 결실도 못맺고 만다. 빗속의 저 나무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가! 나도 저들처럼 풋풋이 내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리고 이 생활이 가장 미웠던 내모습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가끔은 비도 맞겠지만 내 소중한 양식으로 알고 행복 비치는 날엔 맘껏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 언제나 가족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시는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창각에도 좋지 않다는 워크맨 같은 물건에 마음 쓸 필요없다. 대신 내전 산과 비를 볼 수 있는 여유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그 동안의 내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그래, 세상살이 마음먹기에 달린거야!

◇ 학생생활연구소—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신입생 설문조사 분석

학부제·복수전공·계절학기 대체로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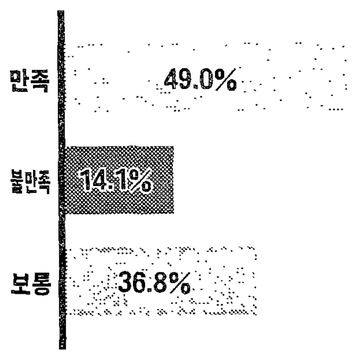
학업지도교수제 등 학사지도체제 강화되어야

학생생활연구소(소장=심익섭·행정학)는 본교가 도입한 각종 신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3월18일부터 4월12일까지 진행된 본 조사는 대학관, 학부제에 대한 인식, 전공 선택, 복수전공과 전과제도, 계절학기, 학점취득제도, 기타 학사제도 등을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해 각학과, 학부별로 20%씩 무작위 추출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학관:좋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훌륭한 교수진, 본교입학에 대체로 만족

신입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장래의 직업준비를 위해서 48.6%, 학문과 진리탐구를 위해 31.9%,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7.7%, 인격도야를 위해 6.6%, 남들이 진학하니까 4.3%로 나타나 취업에 관한 높은 관심

본교입학에 대한 만족도



도를 볼 수 있다. 특히 공과대학(60.0%), 경상대학(58.8%), 사회과학대학(51.5%)에서는 장래의 직업준비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좋은 대학의 조건에 대해서는 훌륭한 교수진 28.9%, 역사와 전통 21.1%, 우수한 학생 19.2%, 좋은 학교시설 12.6%, 학생들의 향학열 10.1%, 졸업생의 취업률 7.0%, 사회봉사 1.2%의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지식전달자이며 학풍을 대표하는 교수들이 좋은 학교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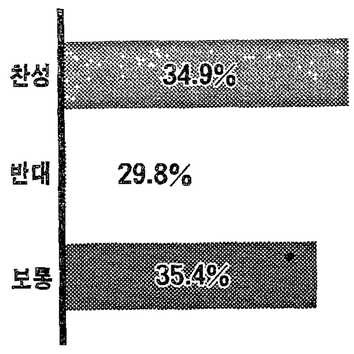
한편 본교입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49.0%, 불만족 한다는 응답 14.1%,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36.8%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감을 표명하고 있었으며, 특히 불교대학(76.5%), 사범대학(72.0%), 예술대학(60.0%)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학부제 실시:학부제 실시에 대체로 긍정적

신입생들은 학부제의 기본 취지를 적성에 따른 학과(전공)의 선택 또는 다양한 학문분야 습득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학부제의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적성에 따른 학과의 선택과 다양한 학문 습득이라는 응답이 각각 42.4%와 36.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유사학문분야의 통합교육이나 학문영역간 상이성 해소라는 응답은 각각 9.1%와 4.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7.9%였다. 이를 보면 신입생들이 본교가 학부제를 도입하게 된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부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학부(계열)소속 학생과 학과소속 학생들간에 응답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학부(계열)소속 학생들의 경우는 45.6%가 적성에 따른 학과(전공)의 선택을, 학과소속 학생들은 34.1%가 다양한 학문분야 습득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본교가 학부제를 실시한 것에 대한 찬성도를 묻는 질문에는 34.9%가 찬성, 29.8%가 반대 35.4%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해 새로운 제도임을 감안할때 중도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학부제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제 실시가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1.4%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9.0%, 그저 그렇다 29.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부제 실시에 대한 찬성도(34.9%)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학부나 계열소속 학생들의 38.2%가 학부제에 찬성하고 있어 전체 평균이나 학과소속 학생들의 25.5%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학부제 실시가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있어서도 학부(계열) 소속 학생들의 44.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학부제의 직접적인 대상자들에게서 보다 긍정적 의견이 나옴으로써 학부제 정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학부제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면밀한 시행이 뒷받침 된

학부제 실시에 대한 찬성도



다면 전국 대학교중 선도적으로 도입한 본교의 학부제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학과)선택:졸업학점 인지도 매우 높고 전공 최저이수학점에 대체로 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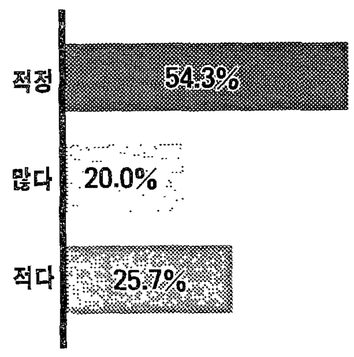
학부제 실시와 더불어 변경되는 졸업학점 인지도는 공과대 95.4%, 불교대 94.1%, 경상대 90.2%, 사회과학대 87.9%, 예술대 86.7%, 이과대와 사범대 각각 85.7%, 법과대와 생명자원과학대 각각 76.5%, 문과대 72.5% 등으로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 최저이수학점 인지도는 생명자원과학대 70.6%, 경상대 64.7%, 사회과학대 60.6%, 공과대 59.7%, 법과대 58.8%, 문과대 55.0%를 비롯해 불교대 25.0%, 이과대 29.4%, 사범대 22.0%, 예술대 20.0%로 졸업학점 인지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공 및 학과의 결정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결정시기를 2학년 2학기 말로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59.6%였으며, 전공 및 학과결정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학생이 57.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전공 최저이수학점의 적정성에 대

최저이수학점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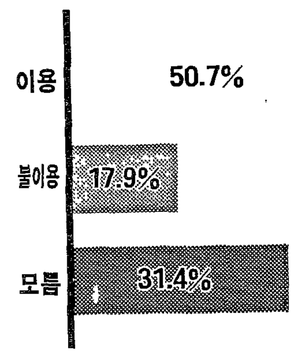


한 의견은 54.3%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많다 20.0%, 적다 25.7%로 적정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었으며, 전공필수과목 폐지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전공필수과목을 존속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78.1%가 전공필수과목을 존속시키거나 수를 줄이는 방안이 좋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공(학과)결정의 고려사항을 보면 본인의 적성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장 많고 졸업후 취업보장 23.3%, 학문적 관심 12.6% 흥미 1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복수전공 및 전과제도:복수전공에 대한 선호도 높아

신입생들의 55.4%는 고등학교 때의 희망학부나 학과에 진학했으며, 36.8%는 희망과 다른 학부나 학과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학부(계열 또는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58.5%, 불만족 33.7%

복수전공제 이용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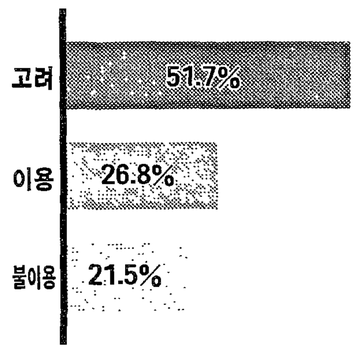
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인접학문이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문분야를 접할 수 있는 복수전공제도 이용 의사를 보면 이용하겠다 50.7%, 이용하지 않겠다 17.9%, 잘 모르겠다 31.4%로 이용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제도의 기본취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대와 생명자원과학대에서 88.2%와 76.5%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학문과 진리탐구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는 응답(각각 64.7%, 52.9%)이 높았던 대학에서 매우 높은 이용 의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과(전부)제도를 이용하겠다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고, 전과(전부)하겠다. 9.7%, 전과하지 않겠다 48.9%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계절학기:계절학기 개설시기 확대 필요

계절학기 이용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는 의견이 51.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6.8%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2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계절학기를 이용하겠다는 학생이 많지는 않으나 과반수를 넘는 고려해 보겠다는 학생들에 대한

계절학기 이용계획



홍보가 계절학기 운영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절학기 개설시기에 대해서는 55.9%가 여름학기 뿐만 아니라 겨울학기에도 개설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25.1%가 겨울학기를, 19.0%가 여름학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절학기 개설시기를 현재의 여름학기에서 겨울학기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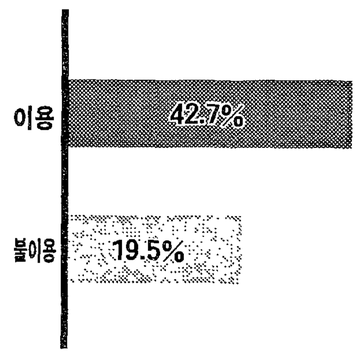
계절학기에 개설되기를 원하는 과목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었다. 즉, 교양·전공·특별강좌 모두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34.8%, 특별강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33.3%, 교양과목 16.3%, 전공과목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계절학기 이용 의사가 26.8%였음에도 개설시기나 개설과목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음을 볼 경우 홍보 여하에 따라서 계절학기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점취득 제도의 이용:재수강제도, 어학연수 학생들에게 인기

관심있는 학문분야나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접근방법의 확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었고, 특히 재수강제도와 어학연수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학원 학점 선취득제도, 타대학 학점 인정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부 과정에서 대학원 학문과정을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과의 학면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대학원 학점 선취득제도의 이용에 대해서는 52.5%가 모르겠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28.8%가 이용하겠다고, 18.7%가 이용하지

재수강제도에 대한 선호도



않겠다는 의견을 보여 계절학기를 이용하겠다는 의견보다 2.0%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타대학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폭넓게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타대학 학점 인정제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보면 23.2%가 이용하겠다, 25.3%가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교대의 경우는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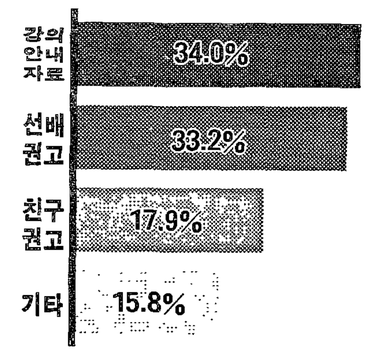
어학연수와 재수강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여타의 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43.3%가 어학연수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했으며 12.4%만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44.3%로 나타났다.

재수강제도의 이용에 대해서도 42.7%가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9.5%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교대(58.8%), 생명자원과학대(52.9%), 경상대(51.0%), 예술대(50.0%)에서는 어학연수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학교측의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판단된다.

기타 학사제도:학업지도교수에 대한 기대수준 높아

신입생들의 교양과목 수강신청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전체적으로는 학교의 강의 안내자료 34.0%, 선배의 권고 33.2%,

교양과목 선택시 고려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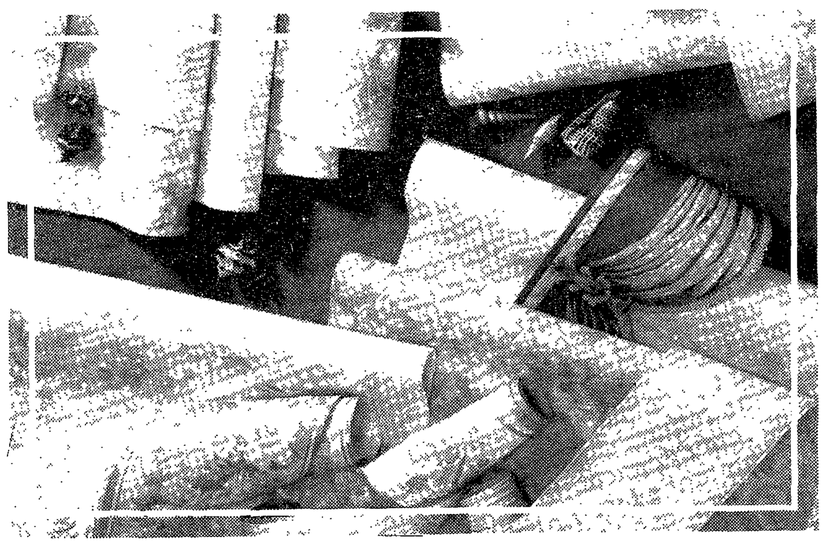
친구의 권고 17.9%, 조교의 지도 12.5%, 학업지도교수의 조언 3.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계열) 소속 학생의 경우 학교의 강의 안내자료 38.7%, 선배의 권고 28.5%, 친구의 권고 18.1%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학과소속 학생의 경우는 선배의 권고 45.5%, 강의 안내자료 21.6%, 조교의 지도 14.9% 등 선배나 학과조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학부제 실시와 더불어 특히 학부나 계열 학생들의 경우 선배나 조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학부 소속 학생에 대한 학사지도체제의 정비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된 학업지도교수에 대한 신입생들의 기대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받고 싶은 내용도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6.9%가 학업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을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17.6%는 전공의 안내 및 선택에 대한 도움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학문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학업지도교수제는 학생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학업에 대한 지도 뿐만 아니라 혹 소속감이 결여되기 쉬운 신입생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까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면담시간의 정례화 등 제도화·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은 입학 초임에도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각종 신교육제도의 토대는 마련되었으며, 그 정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각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현실화·행동화 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제공:학생생활연구소〉

개교 9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것이 세계 정상의 벽지

백악관과 피카소 박물관을 장식한 동남벽지
그 명성 그 품격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동남벽지
• 콘체르토 • 앙상블Ⅱ • 앙상블 실크 • 앙상블 칼라발포 • 앙상블 플러스(비닐 실크벽지, 칼라발포)
• 환타지Ⅲ(최고급 섬유벽지) • 심포니Ⅱ(섬유, 초경, 지사벽지) • 띠벽지(BORDERS) • 수입벽지

■본사영업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4-3 융기빌딩 전화·02)548-6237, 02)516-6848~9 ■공장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27-8 전화 : 0345)494-6231~4 ■영업소 • 서울 : 강남영업소 : 546-3188 남서울영업소 . 599-3211, 강동영업소 : 415-6263, 강북영업소 : 956-1470, 서부영업소 : 376-2296 • 동부영업소 : 3436-4048 • 구로영업소 : 851-0813 • 부산영업소 : 051)626-5656~7 • 대구영업소 : 053)424-5477 • 인천영업소 : 032)863-3527 • 수원영업소 : 0331)258-2570 • 안산영업소 : 0345)85-6007 • 포항영업소 : 0562)77-1110 • 천안영업소 : 0417)551-3550 • 전북영업소 : 0652)252-7559 • 울산영업소 : 0522)67-0346

제5회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저희 국민은행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학(원)생 여러분의 우수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패기넘치는 젊은 지성으로 도전하십시오.

1 논제(다음 중 택일)
●저금리시대의 은행의 수익성제고 방안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가계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은행의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인터넷 활용방안

2 시상
●상금
• 최우수상(1편) : 300만원과 상패
• 우 수 상(2편) : 각 150만원과 상패
• 가 작(5편) : 각 60만원과 상패
×응모자 전원에게 5만원 상당액의 기념품을 증정함.
●시상일시와 장소 : 추후 통보함

3 응모요령
●응모자격: 전국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분량:WORD PROCESSOR로 A4용지 30매 내외, A4용지 3매내외의 요약 별도 첨부
●논문제출기간 : 1996.8.1-1996.8.31
●당선작 발표 1996년 10월말 예정 (개별통보 및 경제신문에 게재)
●1인당 응모편수 및 2인이상 공동응모 제한없음.
●제출처 : 우편번호 100-70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종합기획부 논문현상공모 담당자 앞

4 특전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가 국민은행 입행을 원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채용시 우대

5 유의사항
●논문제출시 주소,성명,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부 첨부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음.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행 소유임
●응모작이 도용 또는 모방으로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특히 당선작으로 확정된 후 위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선취소 조치함.
●기타 사항은 논문현상공모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317-2258,2604)

국민은행

• SINCE 1961 •

36년 전통의
시사영어학원은
최고만을 추구합니다.

● TOEIC 900
● TOEFL
● LISTENING
● LISTEN FOR IT
● TIME
● AFKN
● VOCAB.
● WRITING
● GRAMMAR
● READING
● 영어순해
● 헤럴드 사설
● 시네마영어
● 주말집중반
● 민병철생활영어
● 미국인회화 CELP SPEAKING
● 한인회화 Side by Side 1,2,3,4 INTERCHANGE
● TOEFL 600 종합반 (1일3시간 주5일수업)
● GMAT • LSAT
● GRE
● 대학원종합반
● 통역대학원반
● 일본어회화
● 일본어문법/독해
● 일본어 능력시험반
● 일본어 NHK 청취반
● 일본어통역대학원반

◉새벽,오전:주5일 ◉저녁:주3일 90분강의

세계화의 도우미 ®
시사영어학원
종로2가 종로서적 뒤 TEL:734-2442

◇제4기 한총련 출범식

백만청춘 태운 '한총련 4호' 힘차게 출항 선언

활성화된 부문계열 행사·문화공연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시

전야제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의장=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출범식을 알리는 전야제가 지난 23일 전국 2백개대학 4만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그 장엄한 막을 올렸다.

"전·대·협·한·총·련·10·년"을 의치는 4만의 함성으로 뜨겁게 시작한 전야제는 박병언 서총련 의장(연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산화해 간 6명의 열사를 기리는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해방이후부터 전대협까지의 역사를 담은 아이들의 춤, 꼭두각시춤, 민중들의 춤과 윤금이씨의 이야기를 담은 집체극이 뒤를 이었다.

이인영 전대협 1기 의장부터 오영식, 임종석, 송갑석, 김현준, 정태흥 의장이 참석해 전대협 한총련 10년의 역사를 기렸으며, 새내기 공연단과 함께 '처음처럼'의 노래에 맞춘 한판 몸짓을 보여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총련 중앙위원들은 "전대협·한총련은 10년동안 끊임없이 투쟁해 왔고 앞으로도 민족해방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내세웠고,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유병문(본교 총학생회장)은 "식민지 조국에 사는 이들은 자유로울 수 없기에 미제축출 김영삼 타도를 통해 자주의 시대, 승리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힘차게 외치며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이에 뒤이어 제4기 한총련 정명기의장은 "전대협·한총련 10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하며 "백만청년은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총련의 단결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행사로 '우리는 하나'라는 대동제 한마당이 펼쳐져,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는 흥겨운 한마당을 가진 후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

학자추·조통위 출범식

저녁 9시경 부터 여는마당날 시작으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 한총련 본 출범식이 열렸다.

여는마당은 최태진 남총련 의장(조선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은 "전대협·한총련 10년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였다"고 말하면서 "전국연합과 한총련은 더욱 강고한 연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범청학련 축하편지낭독과 중앙삼임위원 소개로 이어진 여는 마당에 정명기 의장의 부모님이 참석해 "자랑스럽다"며 "뜻하는 바를 이루기 바라며 뒤에서 뒷바라지라도 잘 하겠다"고 말해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기도 했다.

뒤이어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김종호·동아대 부총학생회장 이하 학자추)의 출범식이 새벽 1시에 진행되었다. 학자추 투쟁 모범상에 성신여대, 경원대, 연세대, 상지전문대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그 열기는 의장옹립식으로 이어졌다.

김종호 학자추 위원장은 "조국의 교육은 풍전등화와 다를바 없으며 지금 대학들은 '개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할일은 학원자주화를 향해 매진하는 것이기에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학자추 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학자추 출범식에 이어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유병문·본교총학생회장 이하 조통위)의 출범식이 최태진 남총련 의장의 사회로 펼쳐졌다. 6기 조통위 이원구위원장은 "7기 출범을 축하하며 7천만 겨레 염원이 백만학도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각인해야 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본교 학생들이 준비한 연등의 길을 당당히 가로질러 의장으로 옹립된 유병문 조통위위원장은 "분단은 영원할 수 없으며 이제는 분단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분단세력, 반통일 통일조국 건설하자"고 통일의지를 밝혔다.

출범식 본마당

"열사의 외침 백만의 가슴을 이어, 10년의 애국단심 민족의 희망이 되고 자주통일의 새세기를 개척하라"는 기치아래 한총련 제4기 출범식 본마당이 시간이 많이 늦어져 25일 새벽 2시경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권의 허구적인 정책을 백만청년이 힘을 모아 통일 단결하여 뚫고 가야한다'는 내용의 문예패 공연과 '우리가 보내야 했던 열사를 기리는 마음'을 담은 문예패의 목소리 공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또한 '전대협·한총련 10년의 굽히지 않은 역사'에 대한 공연도 학생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동지가, 한총련 진군가, 전대협 진군가를 부르며 의장이 입장을 할 때마치 백만의 파도가 천지를 뒤흔들며 출항을 선언하는 듯했다.

'한총련 의장을 필두로 백만청년이 김영삼 정권 타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자, 가자, 한총련으로!'의 내용으로 한총련 문예단과 새내기 문예단이 집단적으로 공연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의장으로 응립된 정명기 의장은 "우리 백만 학도는 김영삼정권 타도 투쟁에 매진해야 하고, 투쟁대열에는 한총련의장이 반드시 선두에 서겠다"며 "제4기 한총련은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김영삼정권을 꼭 몰아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단결하는 것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웃을 수 있다"며 "희망이 있는 투쟁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뒤이어 중앙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정명기 의장이 혈서를 써서 투쟁을 결의하는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애국의 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정명기 의장의 삭발식이 진행될 때 전북대에 모인 4만의 학우들은 조용한 가운데도 의장에게 많은 지지와 호응을 보냈다.

삭발식 이후 머리띠를 묶은 정명기 의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김영삼 정권타도 △대선자금공개 △5·18 완전해결 △국가보안법철폐 △교육재정 확보 △조국통일 등을 다시한번 다짐했다.

따라서 출범식은 의장을 옹립한다는 들뜬 분위기 보다는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김영삼 타도 투쟁의 결의를 밝히는 장이되어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끝으로 무대 왼쪽에 마련된 '한총련'글씨에 점화를 함으로써 한총련 본 출범식은 막을 내렸다.

결의대회

출범식 마지막 날인 25일, 출범식에 참가한 4만여명의 학생들은 대선자금 공개와 5·18학살자 완전처벌,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한총련 투쟁본부 발족식'을 갖고 투쟁결의를 한 뒤 시민학생 한마당을 치루기 위해 시청앞으로 향했다.

학생의 대열은 11시부터 시내를 향해 출발했으나 사람이 워낙 많아 대운동장을 빠져나가는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전북대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학생들은 춤과 노래와 함께 거리선전전을 벌여 문화한마당을 방불케 했으며 전주시민과 한데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출범식을 마친 학생은 서울로 올라와 연세대에서 하루 지낸뒤 26일 종로와 대학로 등지에서 '미국반대·김영삼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많은 학생이 연행되었다.

특별취재반

송선영 사회부장
김희동 기자
김기영 기자
이성웅 기자
심미선 기자
김경미 기자
최정식 기자
신유현 기자
조선희 기자
배주영 기자
이해경 기자

취재낙수

세계지도

○…한총련 출범식에 난데없는 불장난(?)이 여기저기서 있었다고.

알아보니, 밤늦게 출범식의 본 행사가 한창 중일때 추위를 느낀 학우들은 배포된 열사들의 전단을 끌어모아 불을 피웠다는데.

그것도 행사는 뒷전인 채 불길을 보고 모여든 학우들도 있어.

이를 지켜본 회전무대자 왈 "불장난한 사람 다 모으면, 내일아침 세계지도(?)는 나올껄"

두꺼운 철판

○…전북대 교정에 웬 안면 몰수족이 등장했다는데.

살펴보니, 한총련 출범행사가 밤세워 치뤄진 탓인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리를 펴고 누운 학우들이 있는지라

더구나, 보도에 버젓이 누워있는 학우들은 온 몸을 철판(?)으로 무장한듯이 보이는데.

이에 분개한 한 학우 "기냥 밟아(?) 버릴까 보다!!"

백만장사꾼

○…한총련 출범식 행사장에서도 돈은 빠지지 않는다(?)

무슨말인즉, 행사장인 전북대 곳곳에 마련된 자료지인 신문·책자따위가 모두 판매되고 있다고 거기다 원물가에 +α가 된 물건들이 학우들의 필요에 의해 소모되고 뒤에서 아주머니들은 돈을 세고 있다고 하니.

이에 한학우 왈.

"백만학우 모이니 백만 장사꾼도 모이네"

유종의 미

○…한총련 출범식이 열리는 전북대학교 곳곳에 선전물이 가득 붙어있어 참가한 학생들이 그 준비성에 감탄했는데.

둘째날 바람이 불자 대자보들은 떼어지고 너덜너덜해져 돌아다니거나 바람에 실려 다니기도 하는 등.

또 군데 군데 떼어져 없어져 버려 대자보를 읽던 학생들 어리둥절하기도 출범식을 여느라 정신 없겠지만 관리까지 잘해야 금상첨화가 아닐까!

◇문화공연 총평

10년 역사담은 다채로운 행사개최

'무대따로 학생따로' 탈피못해 아쉬워

민주정부 수립과 반미타도라는 기치아래 "전·대·협·한·총·련·10·년"이라는 구호로 백만 청년을 태운 제4기 한총련호가 출항을 선언했다.

제4기 한총련은 지난 87년 전대협 출범 이후 그 정신을 이어 10년동안 민족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제4기 한총련 출범식을 치르는 지금 감회 또한 색다른 것이며 백만 학우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문화공연에서도 한총련 10년의 정신을 기린다는 기조로 출범식 기간 다채롭게 치뤄졌다.

전주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어울림한마당을 펼친 '내일을 여는 시작의 노래'행사는 학생들만의 축제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서 벗어나 시민연대의 마당을 넓혀 함께 투쟁의 길을 걷는다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나, 시민들과 함께 공유 할 만한 노래와 시민들의 참여가 아직은 부족하였다.

이 행사에 이은 전야제에서는 열사들을 기리는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로 반미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외치는 전대협의 탄생을 그린 집체극, 전대협·한총련 역대의장과 새내기의 어울림마당, 희망새의 공연, 대종 한마당 등으로 전대협·한총련 10년의 시대적 정신을 백만학우가 함께 인식, 계승하고자 했던 장이었다.

전야제·출범식 문화공연은 한총련 10년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는 보이지 않았으며 무대와 학우들간의 하나된 연결고리가 없어 '무대따로'라는 예년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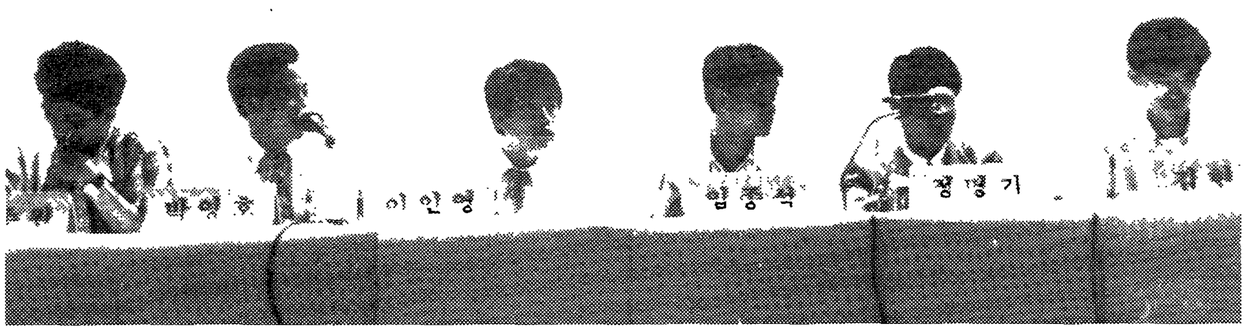
또한 백만 청춘의 열린마당은 작년에 비해 강좌가 줄었으나 참가자들이 전대협·한총련 10년의 역사와 문화 사상등을 토론하고 느끼기에는 충분했으며, 부문계열 한마당은 노래패, 춤패, 동아리, 언론등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가져 청년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전북대 곳곳의 선선리마당에서는 전대협, 한총련 10년을 기념하는 8만개의 캔조형물, 헌청바지를 모아 큰 청바지, 방으로 만든 사랑탑을 선보여 학우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총련 10년을 맞아 기획행사가 많이 치뤄진 이번 출범식은 10년의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어 백만학도의 호응을 얻었으나 한총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가 미흡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대협·한총련 10년 과제와 전망

학생운동, 자주·민주·통일의 구심체로 자리매김 해야

대중성 확보·단결된 모습이 중요한 문제



전대협·한총련 10년 맞이 기념 심포지움이 24일 오후 2시에 전북대 합동강당에서 개최되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청년·학생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인영(전대협1기 의장), 박영호(한청협 대외협력 위원장), 김종원(한청협 정책위원장), 임종석(전대협3기 의장), 정명기(한총련4기 의장)군의 참석한 가운데 발제·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현준 한총련 2기 의장의 사회로,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학생운동 10년을 총화하고 학생운동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대협 시기 가장 큰 성과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서 투쟁의 불을 당기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는데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대협으로의 단결'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통일운동의 새장을 열음으로써 대학인들은 물론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다.

전대협 6년은 민주화·통일을 위한 '투쟁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대협은 날로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한총련으로의 전환이다.

93년 탄생한 한총련의 첫걸음은 거리에서의 투쟁뿐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학문영역에 대한 요구 또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 단과대 학생회장에게까지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라는 기치를 만들어낸 것은 그 고민의 결과를 대변해 준다.

94년 쌀수입 반대 투쟁에서 나왔던 '백만학도 총투표와 동맹휴업' 등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노력을 보인 것이며 부문계열의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을 지니고 있다.

한총련의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구현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한총련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할 과학생회의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단결하지 못하는 일부의 모습도 문제가 된다. 그간 학생운동의 내부에서는 무수한 이견이 오고갔고 이를 지켜보던 많은 학생들에게는 이에 대한 불신이 쌓여갔다. 그러나 학생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견은 10여년의 역사속에 항상 존재해 왔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전대협·한총련은 일단 합의한 것은 실천을 통해 검증하는 기풍을 지니게 됐다. 현시기의 이런 논쟁과 이견 역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고 이후에 나오는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하고 반성하자는 것이 지금의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현실적인 대안에서 나서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총련이 외치는 구호와 과제들이 모두 옳다고 해도 대중들의 가슴 와닿는 확실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95년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던 5·18특별법 제정투쟁에서 보듯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투쟁의 방법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아직 한총련은 10년내기이다. 앞으로 또 10년, 혹은 그 10배 이상을 살아나가야 할 어린아이인 것이다. 전대협·한총련의 의장들이 모여 학생운동 10년을 평가하고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한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어린이를 장성한 어른으로 키워내는 것은 꾸준히 한총련을 사랑하고 비판하며 지적하는 백만학도의 몫일 것이다.

열린강좌

'96열린강좌 청년마당'이 24일 오전에 전북대 교정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다양한 내용의 강연회와 문예공연, 결의대회가 복합적으로 펼쳐졌으며 총 13개의 강좌가 마련돼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긴장고조 정쟁책동에 관해 알아보고 4자회담제의,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김종인(서울연합 자통위 위원장)씨가 강의했다.

열사정신 계승

강경대, 박승희, 권희정 열사의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그들의 삶에 대해 들어보았다. 또한 각 학교에서 준비한 추모공연이 펼쳐졌으며, '열사정신계승'에 대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한미군범죄와 한미행정협정

미국의 한국주둔 이후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범죄상황을 살펴보고 한미행정협정개정, 주한미군 철수의 정당성에 대해 조재학(주한미군 범죄근절 대책본부)씨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학원자주화

상반기 학원자주화 투쟁을 평가해보고, 교육재정확보와 교육악법 철폐에 대해 청년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래운동 희망찾기

꽃다지, 희망새, 노래이야기, 조국과 청춘의 대표와 윤민석씨가 청년학생 노래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 후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월에서 통일로

1980년대 미술운동을 중심으로 남북한 현대미술 흐름을 알아보고 분단의 역사와 통일을 향한 민족운동사에 대해 이태호교수(전남대 미술교육학과)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청년학생과 민중연대

통신의 재벌독점반대와 통신주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중요성과 의의를 한국통신노조와 공유하고, 청년학생들의 민중성과 계급성을 고취하고 힘찬 민중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② 영상문화의 새로운 전개

광통신시대, 인간일상 대변화 예고

결국 '휴머니즘에로의 회귀'를 그리워하게 될 것…

대 중 문 화 읽 기

기획 두번째로 '영상과 문학, 새로운 전개'였으나 본 주제가 광범위한 관계로 지면 한정상 필자와 상의하여 영상매체로 한정, 따라서 '영상문화의 새로운 전개'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점 독자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한국 대중문화의 이해와 전망－김찬호(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
②영상문화의 새로운 전개－장영일(영화감독)
③대중문화시대의 TV읽기－ 손병우(순천향대 신방과교수)

영상문화의 새로운 전기

인류의 미래 예측서 '대변혁 2000'에서 미국의 존 나이스빗과 패트라 애버딘은 '다가오는 21세기는 하나의 세계가 되며 하나의 문화권을 가지게 된다'고 예언했다.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은 '정보통신과 영상예술이 하나로 겹쳐 대추씨같은 모양으로 변한다'라는 특특한 이론을 제시했다.

21세기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이다. '경제전쟁'에서 '문화전쟁'으로 '글자통신'에서 '영상정보'로 작금의 세계는 영상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다.

뉴미디어, 꿈의 세계 실현

1993년 여름 전세계는 공룡의 습격을 받고 놀란다. 영화 '쥬라기 공원'은 잃어버린 쥬라기 시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재현하여 시대를 역류시켰다. 이 영화를 연출한 스필버그는 '이 영화는 공상과학이야기가 아니다. 과학에서 생길수있는 돌발성에 의해 충분히 예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여 전세계 영화인을 섬뜩한 전율속으로 몰아 넣었다.

그리고 이 한편의 영화가 갖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현대자동차 1백50만대를 넘어선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뉴미디어의 신기술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상상력을 동원 3차원의 영상으로 꿈의 세계를 실현시킨다. 컴퓨터 그래픽이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는 국제표준기구(ISO)의 정의를 빌리면 컴퓨터 그래픽은 물체의 형상, 성분, 색채등 각종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이미지 변환작업을 통해 제3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난 60년대 미국에서 건축설계나 도안에 사용되어오던 것이 이제는 영화, 광고, 컴퓨터아트, 시뮬레이션, 산업디자인등 각 분야에서 꿈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표현 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공상과학 영화 '터미네이터2'에서 악당 사이보그 'T1000'이 액체금속 상태에서 사람모습으로 변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표현 일것이다.

완벽한 컴퓨터 그래픽은 물체의 형태를 분석, 컴퓨터가 이해할수 있는 영상정보로 변화하는 기법인 '모델링'과 모델링한 대상을 인간이 느낄수 있도록 질감과 색채를 표현하는 기법인 '랜더링'이 동시에 발전할 때 가능하다.

정보의 디지털 혁명

이렇듯 앞으로의 시대는 광(光)통신의 시대이다. 빛을타고 우주공간을 넘나드는 정보는 우리의 일상과 의식세계를 수없이 현실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며 꿈을 실현시킨다. 즉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광(光)섬유를 통해 문자, 음성, 영상, 정보 그리고 모든 자료가 멀티화 할 것이다.

멀티미디어가 우리의 생활속으로 깊게 들어 올것이다. 디지털 신호와 기호로 입력된 모든 표현 수단물이 통일화 된다.

정보의 디지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보고속도로인 광섬유는 미래의 일상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V.O.D System, 지방에서 대도시의 고급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 원격 화상 진료, 미국 영화사에서 서울의 어느극장에 위성통신을 쏘면 극장의 접시(파라볼라)안테나가 그것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위성시스템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정보통신영상은 위성, 케이블, 공중파라는 지역구분을 넘나들며 수퍼하이웨이를 형성한다.

이는 곧 정보전쟁을 통해 시장경제의 변화도 예고하는 것이며 인간의 모든 일상에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등 컴퓨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영화나 고화질 TV(HDTV)를 보는것처럼 이동물체와 3차원의 자연현상등을 생생하게 표현해낼 정도로 두분야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

이런 신기술은 고부가가치의 경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뉴미디어를 통한 신기술은 인간의 상상의 가상세계에서 한부분에 대한 상상의 집약인 테마파크까지 또 일상의 모든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실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영상테크노피아는 재택근무, 주문형비디오, 화상회의, 전자투표등 미래세계에 대한 편리한 정보통신분야에서 꿈을 이룬다.

인간의 존재 확인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만이 인간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호기심'과 '상상력'은 다시 자연환경을 통해 현실적 가시세계의 존귀함과 펜으로 글쓰기라는 기본적인 형태로 인간회복과 대화를 통한 휴머니즘을 그리워하며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것이 미래환경에 대한 가장 큰 의미의 메세지 일 것이다.

장 영 일

〈영화감독〉

달 하 나 천 강 에

무가(無價) 보배를 찾아쓰자

어느날 우연히 텔레비젼을 틀어보니 앞니가 두어개가 빠진 소년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집에서는 내가 제일 큰 보배래요.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나 될 수 있거든요' 참 옳은 말이다. 그러나 하필 그 소년 뿐이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값으로 헤아릴수 없는 보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량 없는 복을 짓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요. 나와 남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도 내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이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대각을 성취하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중생이 여래공덕을 본시 갖추고 있으나, 이는 모든 생명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온전한 대자유 대평화 대지혜의 공덕을 갖추고 있건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를 한정하고, 제가 하는 일에 구속되어 조금의 자유도 향유하지 못하면서, 한없는 고통을 받는것을 여래께서 크게 슬퍼하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본래 온전한 공덕을 지니고 있음은 부처님이 증언하신 것이며, 또한 동서의 성인들과 큰 철인들이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간단하다. 범부의 소견에 따르면 제자신의 일체생활이 조건속에 한정되어 있으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것이 결정되어 있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느끼는 것도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다. 삶의 길이나 죽음의 길도 결국은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천하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제가 싫으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요.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한몸을 희생하려고 결단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조직, 어떤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참생명을 우리 모두가 본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인 것이다. 이런 보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얻어도 그만 잃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한없이 괴로워 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그 근언을 추구해 보면 결국 참생명을 자각하지 못한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데 귀착된다. 이 열등감때문에 공연히 헛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편하게 한다.

바로 얼마전이 부처님 오신날이 었다. 호화로운 잔치 분위기도 그리 나쁠것만은 아니겠지만 여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깨우쳐주고자 한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음미해 보는일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김 항 배 문과대 철학과 교수

서 평

고대 그리스·현대 독일 작품과 연관된 또다른 연극론

드라마연구, 작품생성·공연 시대 상황과 연계 조명해야

하인즈가이거와 헤르만 하르만 (임호일 역)

드라마작품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인식

대학에서 '희곡론'을 강의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삼대 비극작가의 작품을 보거나 읽고,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작품 중의 하나인 쏘포클레스의 '오이디프스 왕'을 모델로 '비극식 작법(시학)' 강의노트를 만들어 냈다는 요지였다. 담론은 다분히 작가와 비평가의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에 감탄하면서 진행되었다.

이같은 시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연극인들이 정치 상황으로부터 물려받은 공동의 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인즈 가이거와 헤르만 하르만이 지은 '드라마 작품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 인식(원제; Aspekte des Drama 임호일 역·지성의 샘 간행)이라는 책은 그런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또 하나의 시각을 갖게 한다.

드라마는 시와 소설과 달리 처음부터 극장이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곳에 모여드는 관객을 전제로 성립되는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작품이 태어나고 공연된 시대의 사회·역사적 측면과 연결지어 조명해야 된다는 입장이 이 책 저자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태도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들은 작가의 작품이나 연극론을 사회의 한 요소로 취급하지 않는다. 정치·경제·종교 등 여러 요소 중 연극이나 연극인들이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할 때의 국가나 시대를 선택해서 논리를 전개한다.

제1부 희곡과 연극과의 관계에서 저자들은 △고대비극과 △시민비극 △서사극을 선택한다. 고대비극에서 그리스의 삼대 비극 작가의 작품과 폴리스의 정치제도, 아테네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과 연관시킨다. 시민 비극에서는 당시 독일 봉건 세력과 신흥 시민 계급과의 관계, 특히 레싱의 '함브르그 연극론'과 그의 작품들을 분석한다. 우리는 레싱이 함브르그 연극론에서 카타르시스를 '정화'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레싱의 '정화'는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문다고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책은 '정화'를 사회·윤리적 차원으로 확장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2부 희곡의 구성 요소도 새로운 시각을 지니고 있다. 편의상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면 및 연극 텍스트로서의 희곡 △줄거리 유형 △줄거리 구성(막·장·등장) △무대 형식 △삼일치의 법칙(줄거리·장소·시간) △형식의 유형 △서서화 △희곡적 연속성의 수단 등이다.

3부는 희곡 발전사에 관한 텍스트와 그 중 중요한 원문을 발췌·게재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와 현대 독일 희곡작품과 관련시킨 또 하나의 희곡론이나 연극론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극 개론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책은 동시에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과 프랑스 고전극의 작가들의 작품을 다룸으로써 세계성을 획득하고 있다. 한걸음 나아가 이 책은 연극 학도들에게 한국 연극과 희곡 작품을 사회·역사적 차원에서 재조명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고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희곡을 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극은 시민사회와 떨어져 있는 예술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이 반

〈숭실대 문과대 교수·극작가〉

문화단신

◇물마시는 도시…김용철 한국문인협회 이사가 세번째 창작집 '물마시는 도시'를 출간했다.

김이사는 본교 국어국문학과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뒤 현재 본교 법인사무처 사업부장을 지내고 있으며 1985년 두번째 창작집을 펴낸 후 여러문예지에 발표한 작품 중 '94년 제8회 동국문학상을 수상한 중편 '오르막길'을 포함 10편을 선정해 이책에 수록했다.

'겨울편지' '환상의 덫'에 이은 이번 창작집은 집문당에서 출간, 가격은 7천원.

이제 노트북은 화질입니다 -효성 멀티미디어 노트북PC 네오제트

neoZ

노트북에 멀티미디어 기능은 기본 —

이제, 화질로 승부한다
효성 멀티미디어 노트북 PC

노트북으로 이렇게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실감영상. 저는 효성 노트북 PC로 외국의 CF 자료를 생생하게 고화질로 받아봅니다.

CF 감독 － 은종록

화질이 생생하다. 잔상이 사라졌다.
- 4배속 CD-ROM으로 빠르고 생생한 화면
- 2MB VIDEO RAM의 풍부한 색상표현으로 더욱 선명한 화질
- 10.4" TFT LCD로 상.하.좌.우 어디서나 또렷한 화면
- MPEG채용으로 영화, VIDEO 감상

멀티미디어PC의 새장을 열어간다.
- 국내최초 컴퓨터 전문생산공장 설립.
- 국내최초 노트북 PC생산.

재태크 절약기능
- CPU 전압 2.9V채용으로 절전기능까지!
- IrDA 적외선 무선통신기능으로 자료의 무선 송수신!
- 터치패드 마우스로 더욱 편리해진 마우스 조작!

CPU	RAM	VRAM	CD	FDD	Sound
100MHz	8MB	2MB	4배속	3.5"	16bit Stereo

효성컴퓨터

전문대리점 개설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TEL·707-7631~4

총대, 정기 대의원 총회

상반기 사업평가 보고 총학생회칙 개정 논의

총대의원회(의장=천성국·컴공4)는 정기 대의원총회를 오는 28일 4시 동국관 L401에서 실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상반기 사업평가로 △예비조직감사 △문과대 정·부회장선거 △예술대·사회과학대 대의원장 선거 △새터 부정기 감사 △1학기 학생회비예산분배 결과가 보고된다.

또 총학생회칙 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실시된다.

총대의원회는 시대요구부응, 학내 민주주의 강화, 학생대표자와 대의원 총회의 역할구분을 회칙개정의 목표로 설정했다.

총대의원회 최이선(통계4)부의장은 "최근 몇년간 정족수 미달로 인해 성과 없는 총회가 되어왔다"며 "대의원들은 주인된 자세로 꼭 참가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논란이 되어온 중앙기구간 예산분배는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의 합의에도 불구 총여학생회의 거부로 지난 23일 중앙위원회로 상정, △총학=20% △동연=7.5% △총여=5.5% △총대=4%로 확정됐다.

확정된 분배비율은 최이선 예산분배 소위원회 의장이 각 기구간 합의도출을 위해 최종 제시했던 안이다.

도서관 이용안내서 발간

배치도·열람·대출 절차 실어

중앙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은 '우리도서관'이라는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를 이번주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1만부 정도를 만들어 재학생에게 나눠줄 이번 책자에게는 각 층별 배치도와 자료 이용안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자료대출 및 열람, 도서신청 부분에서 재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도서관측 한 관계자는 "안내 책자를 통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신입생들을 위한 안내책자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도서기증

북한 인권백서 등 4백33책

세계자유민주연맹과 이병동(농업경제학) 퇴임교수는 각 지난 3월13일, 19일 중앙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에 도서를 기증했다.

도서관은 세계자유민주연맹이 기증한 '북한인권 백서'등 1백56책과 이병동교수가 기증한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등 논문 1백83책, 동서 94책을 수증했다.

'미술창작의…'강연

작가 최열씨 초빙

미술학과(회장=조용수·4)는 오는 29일 학술문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술창작의 주체인 작가가 가질 의식'이란 주제로 작가 최열씨를 초빙,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족작가 4·5인의 활동과 작품관' 및 '창작작가가 가질 작품관'에 대해 강연한다.

강연 이후에는 '작가의 풍성과 작품관'에 대한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작가 최열씨는 '현실과 발언'의 동인이며 민족작가론을 연구·집필중에 있다.

인·적성검사

취업에 많은 도움 될듯

제8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남익희·경제4)는 오는 29일 동국관(L101)에서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한국교육개발원 협찬으로 치뤄지는 이번 검사는 다수의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시 실시되는 검사에 미리 적응하는 것이 목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이번 검사는 전학년 대상으로 붓골(구 만해서점)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비용은 시중의 절반 가격인 4천원이다.

◇ '동국 시집'발간의 의의

동대 문학전통의 확인

동시대 독자에게 화두 제시

한국문학연구소(소장=홍기삼·국어국문학)에서 '동국시집' 20집을 발간했다.

이는 한 대학의 출신 시인들이 시화집을 엮어냈다는 단순한 차원의 의미는 아니다. 동국문학의 찬연한 전통을 말하고자 할때 상투적인 상찬의 말보다 실천적 작업의 결과물로 웅변해 보이는 것이 의외로 크다.

동국문학의 전통을 입증하는 자료를 애써 찾을 필요는 없다. 일찌기 한국문학에서 기라성 같은 성가를 드높였고, 지금도 주옥의 시를 생산해 내는 현역시인이 1백여명에 달하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에 값한다.

이렇듯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등 한국 현대 시문학사의 흐름을 말하려고 할 때 본교출신문학인들의 자리는 확고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의 맥락을 엮어온 하나의 끈이 바로 '동국시집'이다.

물론, 그 끈이 순탄케 이어져 내려온 것만은 아니다. 1949년에 창간된 이래 6·25같은 세월의 고비를 거쳐오는 동안 불가피하게 중간 중간 발간을 머뭇거린적도 있었고 재정상의 문제로 거의 10년 가까이나 발간이 되지못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동국시집' 20집의 발간은 동국의 문학적 전통을 재삼 확인하는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동국시집' 20집의 발간이 다시 예전과 같은 동국문학의 자존심을 되찾고 동국의 문학적 위상을 높이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으며 하는 바램이다.

동국문학인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삼 한국문학연구소장은 "인문주의와 정신적 가치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동국시집'의 발간을 한 대학의 문학적 전통의 확인이나 자부에 머무는 작은 일일 수도 있으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문학 독자들에게 하나의 의미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발간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번 '동국시집' 20집에는 서정주, 장호, 이형기, 황명, 강민, 신경림, 박제천 등 선배시인 80여명과 재학생 변윤수(국문4)등 7명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동국문학을 다시 되짚어 보는 좋은 기획다 되지 않을까 한다. (취재부)

단대 공간문제 '지지부진'

실험실습실 확보 등 주장

경상대 경상대학생회(회장=하재기·경제4)는 오는 28일 학자투요구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점거농성 75일째인 경상대는 지난 5월초 점거를 일부 철회했으나 지금까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질의서의 내용은 △새내기 자치공간확보 △전용강의실 2개 배정 △학생증원에 따른 교수의 채용 등이며, 지난 3월21일 보낸 질의서에 △분반한 전공과목에 교수 배치가 추가됐다.

한편 3월에 보낸 질의서의 학교측 답신은 아직 못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강좌 야간총학생회(회장=구장주)는 이번주 내로 2차 투쟁요구안을 학생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2차투쟁요구안은 학교측에서 내주기로 한 실습실이 이과대와의 공용인가에 대한 여부와 기자재 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과대 문과대 학생회(회장=원진욱·사학4)는 지난 21이 명진관 앞에서 인문학부 자치공간확보를 위해 인문학부 새내기들을 구축으로 집회를 가졌다.

또 오는 29일 인문학부 자치공간 확보문제를 비롯 열악한 강의실 학회실 문제를 위한 제2차 문과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남총련 반미집회

광주문제 완전해결·미군철수등 주장

'반미투쟁 집회'가 서남총련소속 동국대 등 4개대학 3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3시부터 숭실대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중앙대 총학생회장 백주선(법 4)군이 사회를 맡았고,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투쟁총화, 현대적 과제 △총체적 부패정권 김영삼정권 규탄발언 △광주항쟁 미국개입규탄과 미국의 공개사과 촉구발언 △용산 미군기지 환수에 대한 발언 △투쟁 출범문 낭독의 순서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각 발언자들의 발언내용은 공통적으로 △광주문제 완전해결 △미군철수 △김정권타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참가자들은 이후 오후5시경부터 숭실대정문에서 약 2시간여동안 화염병, 돌 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후 오후7시께 자진 해산했다.

생리대 자판기 설치

생활협동조합 설립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은 생리대 자판기 6대 구입을 결정했다. 자판기 관리, 운영은 생협에서 할 예정이며 자판기 설치 위치는 이번주 중에 확정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제11대 총여학생회(회장=서정은·역교4)는 '자판기 중 1대는 전산원에, 나머지 5대는 학림관 1층, 도서관 2층, 명진관 1층, 동국관 3층, 학술문화관 여학생 휴게실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구부 8강 진출

충북대 5대3으로 꺽고 조 1위로

본교 축구부(감독=최종덕)가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대학강호 고려, 충북대를 이기고 8강에 진출했다.

본교는 지난 25일 효창구장에서 열린 8강진입전에서 공격수 이성덕(체교 2), 김정겸(무역 2), 김근호(정보관리 3), 최창구(정보관리 3), 김일수(법학 3)등의 뛰어난 골결정력으로, 작년 우승팀 홍익대를 예선서 이기고 올라온 충북대를 5대3으로 승리를 낚아챘다.

이날 승리의 요인에 대해 정창현 체육부장은 "공격수의 고른 활약과 수비수 박인화(정외 4), 송영종(경제3), 윤근호(체교 1)의 방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데 있다"고 밝혔다.

대학강호 고려대를 예선에서 이기고 2조1위로 예선통과해 상승세를 타고있는 본교는 오늘 2시 효창구장에서 전력이 비슷한 중앙대와 4강진입전을 갖는다.

이날 앞서 펼쳐진 경기의 전적은 다음과 같다.

△15일 동국대-선문대 7대2 승 △17일 동국대-교원대 6대0 승 △19일 동국대-경희대 1대1 무 △23일 동국대-고려대 2대1 승

한편,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애틀랜타 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이영민(경영 3)선수가 아쉽게 준우승에 그쳐, 대표 선발에는 탈락했다.

선무장학회 구성

선무부 동문들이 지난 18일 '선무장학회'를 구성했다.

이 장학회는 선무동우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으며, 97학년도 1학기부터 선무부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선 1명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학금 지급은 선무부 부원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봉사정신이 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장학회는 △회장=김세영 (경제 61졸)△부회장=구덕회(법66졸)△총무=윤진현(식공 68졸) △위원=오병선(법 66졸), 이창응(식공 67졸) 동문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장학기금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선무부는 '제4대 사범추대' 행사도 함께 가졌다. 사범은 선상규 학생 부처장으로 국기원 6단, 제32회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의 약력을 소유하고 있다.

학내공간 재배치

96학년도 1학기간 학내공사로 본교의 제반시설의 위치가 변동됐다.

본관 1층에 강의실 5실과 기계과 실습실 3실, 기자재실 1실이 새로 마련되고, 2층에는 구매과, 과학과, 사무실, 장학과, 비상계획과, 연구교류처가 배치된다.

또 동국관 44실, 교수회관 2층 12실, 원흥관 2, 3층 8실등 총회실의 연구실이 만들어지고, 원흥가든과 원흥관1층 도서관의 자리가 맞바뀌게 된다.

인환스님 초빙법회

고승초빙법회가 인환(선학)스님을 법사로 내달 4일 정각원에서 마련된다.

인환스님은 본교 불교학과를 64년에 졸업했으며, 일본 동경대에서 '신라불교의 계율사상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후, 82년부터 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1백여편의 논문을 남겨 '움직이는 불교사전'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14년간 본교에서 후학을 양성해온 인환스님은 올 여름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학과소식

인도철학과

학과발전을 위한 '건설준비위원회'가 오는 29일 학생회실에서 열린다.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4학년들의 졸업작품전이 오는 31일까지, 학술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산업공학과

체육대회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만해광장에서 실시한다.

회·전·무·대

동국타임

○…지난 23일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하려는 학우 3백여명 출발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고.

약속했던 차가 두시간여 늦게 도착, 4시가 넘어서야 출발하게 된 것.

이제껏 한두시간씩 늦어졌던 전례를 알고있는 운전수 아저씨가 일부러 늦게 왔다는 소문까지 들리는데.

이에 출발시간 맞추느라 수업빼먹고 기다리던 한 학우왈 "양치기소년 한계에 달하다"

단무지

○…요즘 보리수에서 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고민이 크다는데.

떡볶기는 반도 익지 않은채 나오고 칼국수나 떡만두국은 너무 짜서 물을 타먹어야 할 정도라고.

더군다나 30여분이나 기다려서 받은 음식이 이 모양이니… 받아든 학생들마다 적잖이 흥분.

이에 한 학우 단무지만 되씹으며 외치기를 "아! 열 ,받는다"

상인축제

○…지난 20일 성년의 날, 장미, 케익, 향수가 갑자기 날개돋친 듯이 팔려 상인들이 큰 기쁨을 누렸다고.

성년의 날은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데 어째 선물만 주고 받으며 흥청대는 것으로 퇴색되어 버린 느낌.

본 회전무대자는 혹시 상인들의 축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에 한 미성년자가 말하길 "살기도 힘든 세상 함께 살아야죠"

스테레오

○…요즘 강의실에는 스테레오 현상이 유행이라고.

다름아니라 교수님이 출석확인할 때 한사람을 호명하면 대출을 부탁받은 이들이 여기저기서 부름(?)에 답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

어느 강의실은 있는 사람의 3배까지 출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니 잘하면 한사람이 7~8명까지도 소화하는 모양.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일인다역도 좋지만 팀웍이 맞아야 작품이 나오는 법"

나딘 고디머(1923~)
남아프리카의 비인간적인 인종차별정책에 대항하는 작품을 통해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한 백인작가 199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외침으로 세계가 깨어났다

남아프리카의 비인간적인 인종차별을
전세계에 고발한 나딘 고디머 —
한 여성의 용기어린 삶이 역사를 바꿔놓듯,
여대생 여러분의 잠재력 속엔 무궁무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향한 여러분의
앞선 사고를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태평양은 여성의 꿈과 미래를
이어드립니다.

■컬춰렛(Culturette)이란?
여성문화 활동가를 뜻하는 말로써, 21세기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조하는 앞서가는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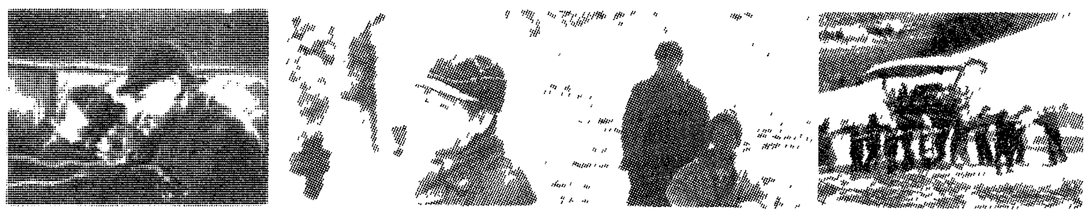
제2회 컬춰렛 선발
태평양「여대생 논문」공모전

1. 참가대상 · 전국 각 대학 재학중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2. 응모기간 · 96.10.21~10.31
3. 응모주제 · 현대 가족속에서 여성의 역할 (택일)
① 자녀 교육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② 부부 관계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③ 혼수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④ 효의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⑤ 상기의 열거된 것 외에 가정이나 가족 속에서의 여성의 역할
4. 응모방법
▪분 량 · A4용지 20매내외 분량 (200자원고지 80매 분량)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제출
· 2장내외 논문요약내용 별첨
· 논문원본 1부 및 사본 2부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96년10월현재)
· 자기소개서 1부(여권용사진부착)
-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5. 시 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우 수 상 3명 -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
· 장 려 상 5명 -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6. 입상자 발표
· 1996년 12월 16일 개별통지
7. 제출처
·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75-2 성원빌딩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8. 기타사항
· 수상자는 당사 입사시 우대
· 수상자는 졸업때까지 매년1회 이상의 컬춰렛 모임 초대
· 수상자 전원에게 2박3일 태평양 제주농장 견학
· 전원 기념품 증정
· 제출논문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02-749-2388~9)
9. 심사기준
· 독창성, 논리성, 실용성

태평양

영상매체비평

— 영화편



서구의 영상문화 독점에 TV영화 반기

정 재 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얼마전 KBS에서 외국영화만이 판치는 황금시간대인 주말의 명화시간에 예외적으로 한국영화도 아닌 한국 TV단막극을 방영했다. '길위의 날들' (연출 김홍종)이라는 제목의 이 드라마는 신설 프로그램 '신 TV문학관'의 첫 번째 방영작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80년대에 KBS의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프로그램이었던 'TV문학관'을 다시 부활한 것이다. 사라졌던 프로가 다시 부활된 사례는 이것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인간시대', '추적 60분'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에 과거의 프로가 다시 부활한 것은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지는 않는다. '신TV문학관'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는 의미로 나타났는데, 그 새로운 장르란 'TV영화'라는 형태이다. TV영화란 필름으로 촬영하여 극장과 TV양쪽에서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TV영화의 개념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외국에선 70년대 이래로 널리 정착된 개념이다. 현재는 극장전용 영화의 숫자보다 TV영화의 수가 더 많은 실정이기도 하다. TV영화의 성격은 양쪽을 다 겨냥해야 하기 때문에 종래의 영화적 혹은 방송적 관행을 많이 변화시킨다. 영화는 오로지 TV를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력, 기법을 구사한데 비해 TV는 안방시청자에게만 호소하는 작가위주의 드라마를 생산해왔고 그리 큰 문제가 없었던게 사실이다. 그래서 영화와 TV드라마를 한번 봐서 그 성격을 구분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양쪽을 겨냥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고 유행하면서 서구의 현실은 크게 바뀌었다. 이제 영화와 TV의 간극은 우리와는 달리 상당히 좁혀진게 외국의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TV영화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독일이다. 70년대 독일영화는 새로운 감독들(벤더스, 파스빈더, 헤어쪼크, 쉴렌도르프 등)에 의해 부흥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화산업은 TV라는 보다 더 대중적인 매체의 유행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영화가 위축된다는 것은 영화의 순수한 예술성, 진지함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가 아무리 상업적인 매체라 하더라도 TV가 보여주는 것에 비하면 훨씬 과감하고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영화인들이 자구책으로 택한 방식이 소위 '수륙양용영화'라는 개념이었다. 종래의 영화인들은 TV가 등장한 이래로 TV를 적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젊은 감독들은 TV를 동지로 맞이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영화의 순수성만을 고집하던 태도를 버리고 TV매체를 동일한 대중매체로서 취급하고 영화와 같은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에게 TV영화가 실험된다는 것은 그럼 점에서 고정된 매체간의 경계를 허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화산업은 70년대의 독일 이상으로 서구영화 소프트웨어시장에 의해 크게 잠식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우리가 한국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TV의 진부함을 개선하고 영화산업과 연계된 비디오, 케이블 확대된 매체에서 국내 소프트웨어를 계속 공급함으로서 서구의 독점에 대항한다는 것은 한국영상문화의 정체성을 또한 확립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제35차 세계광고대회

'세계 비전'등 다양한 주제

한국 광고계 성장 뒷받침 할듯

맘보춤과 경쾌한 음악과 함께 최근 제작된 CF들이 겹쳐져 스치듯 지나간다. KOEX전시관, 시내 유명호텔, 한국의 맛갈스런 음식들, 유명휴양 관광지 등이 차례로 지나가며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마지막 끝맺음, "Welcome to Korea, See You in Seoul". 이것은 오는 6월 9일부터 12일 나흘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제35차 세계광고대회의 IAA 한국지부에서 만든 15분짜리 '96 서울광고 대회의 홍보용 필름이다.

VISIONS—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와의 연계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세계광고대회는 2년 마다 열리는 광고의 올림픽이라 불릴 정도로 광고계에서는 꽤 커다란 행사다. 그리고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개최하는 행사여서 세계 10위권의 광고국인 우리나라의 광고계 성장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본 회의 외에 관련 전시회 및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상 참가인원만 해도 국내 1천 5백여명, 해외에서 1천여명등 총 2천 5백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광고 행사다.

'VISIONS—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와의 연계'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세계광고대회의 대략적인 행사일정을 소개하면 이렇다. 행사의 첫날인 9일에는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등록 및 환영연이 열리고 그 다음날인 10일에는 '세계 비전'을 주제로 기조 연설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환경, 새로운 힘을 갖는 소비자와의 연계에 대한 연설,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시장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전망,아시아의 매체발전 현황에 대한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11일에는 '새로운 현실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전자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액티브에 대한 대응, 인터액티브를 통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등이 발표된다. 또한. 기술전문가를 초빙, 사이버 시스템, 시뮬레이션, 네트워킹, 디지털화 등의 발표가 있으며 이어 'Man of the Year'를 뽑는 IAA 시상식이 이어진다. 대회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크리에이티브의 비전' 을 주제로 크리에이티브의 미래와 주체, 대가, 접근 방식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그밖에도 크리에이티브 업무부분의 통합과 언론의 자유, 상업언론의 자유에 공헌한 독일의 에도 본로웨스턴씨가 기념연설을 하고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제작된 광고 가운데 '말썽 많았던 광고' 모음 시사회도 열릴 예정이다. 폐회식에는 모범적인 IAA지부를 표창하는 IAA골든 튤립 및 Samir fares(중동의 유명광고인)상 시상이 있고 IAA세계회장의 비전제시와 함께 1998년 차기 주최지인 이집트측에서 송별연을 끝으로 나흘간의 행사는 끝을 맺는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일반인은 거의 1백만원에 가까운 99만 9천원 정도의 조금 부담스러운 등록비를 내야하지만 학생이나 교수는 일반인의 10% 정도인 9만 9천원을 내면 누구나 제한없이 참여 할 수 있다. IAA세계광고대회는 1949년 뉴욕에서 1차 대회가 개최된 이후 스톡홀름, 멕시코 시티, 도쿄, 함부르크, 바르셀로나, 멕시코의 칸쿤 등에서 열린 바 있다.

(문화부)

제1회 동악 성문화제

성을 상품화하는 상업상 비판과 성문화 공론의 장

이색적인 문화제가 열려 학생들이 시선을 크게 끌었다. 다름아닌 총여학생회(회장=서정은·역교4)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제1회 동악 성문화제'를 개최한 것이다.

이 문화제는 작년 연세대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는 행사로 올해 본교에서 열려 또다시 교내외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첫날 강성수의 미술학과 학우들의 인형극을 닮은 인형극 '복상씨가 웃는다'를 시작으로 23일 시상 및 강연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성문화제를 실시한 목적은 성(性)을 사적인 영역에서 분리시켜 성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의 상업성을 비판하고 성에 대한 문화와 담론을 동악내에 공론의 장으로 형성코자하는 의도인 것이다.

학생들도 이에 부응하듯 인형극 '복상씨가 웃는다', 페미니즘 영화제, 동성애 영화제에 많은 인원이 참가해 처음으로 선보인 문화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호응도 면에선 성과를 거둔 것이다.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다룬 6편의 영화를 상영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호응은 높았으나 반면 시설준비 등 부담이 적은 영화상영이 4일간의 일정중 절반을 차지해 학생들의 비난도 있었다.

영화상영을 지켜본 한 학생도 "영화관람이 끝난후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영화상영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자리가 있었으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달 마감된 성문화제 공모작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만화, 단편영화, 퍼포먼스 등 11편의 작품이 다채롭게 선보였으나 '다소 창조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술학과 하용석교수와 총여학생회 집행부와 자봉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작품성을 고려했으나 소재가 진부하고 내용이 단순한 작품이 대부분이어서 1등상은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고민과 생각을 보여준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2등을 차지한 작품은 민중미학연구회 미술분과 소속 박영민(건축공2)외 2명이 출품한 '등대'로 회화에 설치가 가미된 작품이다. 그외 3등에는 맑스철학 연구회 신순옥(영문1)양의 '파괴 그리고 창조'란 여성을 상징하는 콜라병을 깨는 퍼포먼스 작품이, 그리고…그림 회원 양병일(건축공2)군의 '또다른 시작'이 공동 수상작으로 뽑혔다.

◇시상식에서 2등상을 수상한 박영민 외 2명의 출품작 '등대'

이처럼 공모전과 수상식에서 동아리 소모임의 출품작이 대거 입선해 동아리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여학생회장 서정은양은 시상식 자리에서 이번 제1회 성문화제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성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들으며 내년 제2회 동악 성문화제에선 성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성사되길 기대해 본다.

(한상용 기자)

대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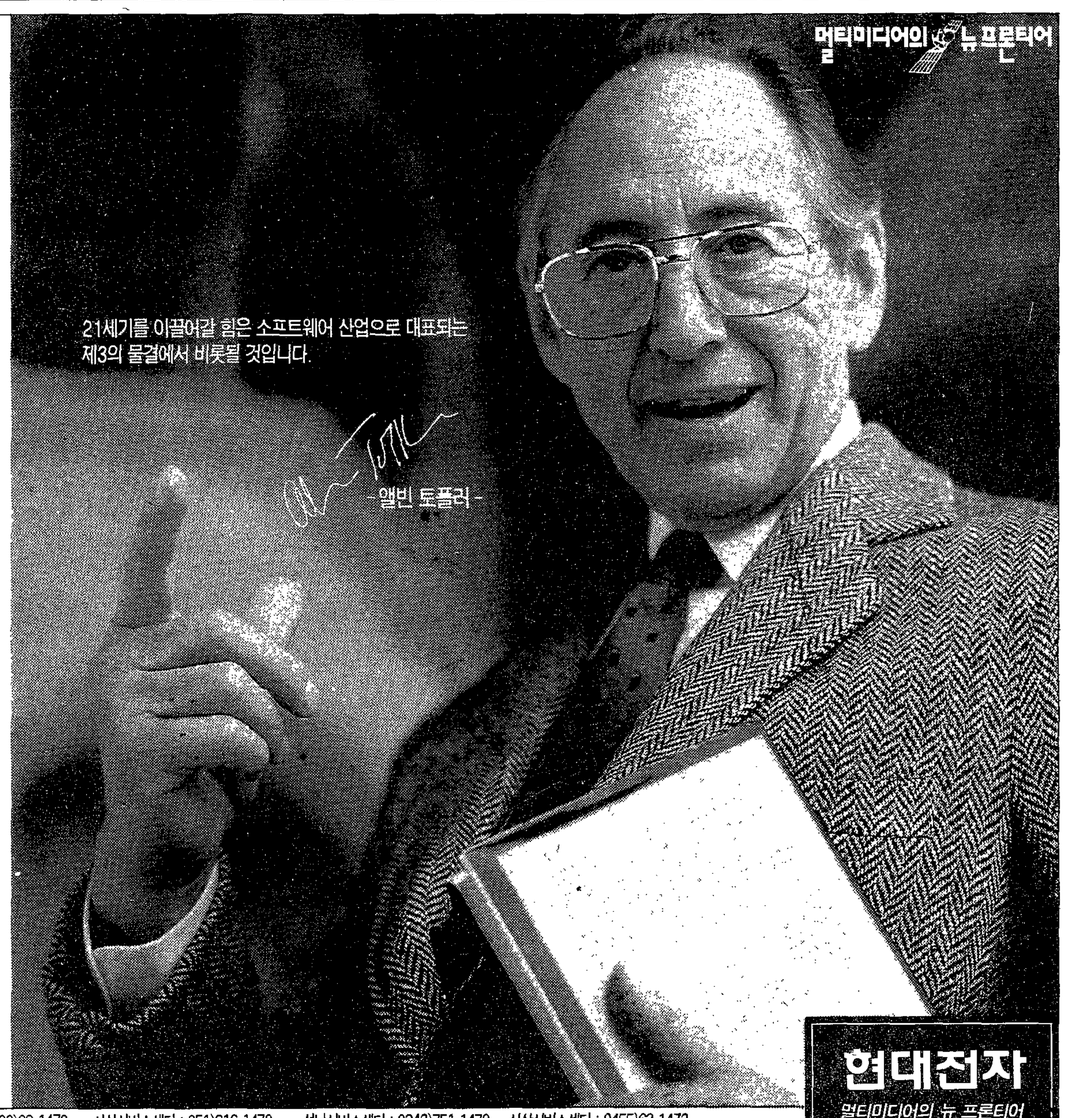
불(?)과 한총련

▲프로메테우스는 신도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 암흑의 시대에 인간들의 욕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부딪힌 역사에 출구를 열어준 것이 바로 불이다. 80년대 전대협은 암울한 사회의 발전과 인내에 많은 공로를 하였으며 90년대 회의와 새로운 가치의 부재라는 위기상황에서 80년대 프로메테우스, 전대협의 진화를 이끌어 냈다. ▲디오니소스는 많은 성격을 가진 신이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힘을 나누어 갖는 의식으로서 자연과 자연의 주기성을 확인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의식이었다. 70년대 쌍쌍파티의 대학축제를 대학문화 복원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변화시켜 나갔고 광주민중항쟁이라는 통한의 피내음 속에 신성한 일탈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역사속에 전대협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속에 전대협을 계승한 한총련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한총련은 반상회에서 주민을 동원하듯 과학생회 성원을 동원하려 했다. 독일의 총통 히틀러는 그의 가장 큰 이데올로기로 대중선동을 내걸며 국민을 동원했다. 당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엄청난 희생양을 요구하며 사회내부로 퍼져갔다. '동원'그 자체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와 불일치될때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때 반상회에서의 동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한총련은 전대협 6기, 한총련4기, 학생운동 10년을 맞이하여 대중적 지지를 받는 새로운 테마를 개척하자고 주장한다. 효용성이 떨어지면 제거되는 톱니바퀴처럼… 그 속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등 민중과의 연대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한총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90년대 프로메테우스의 새로운 '불'로 개혁되기 위해… 〈영〉

21세기 소프트웨어의 뉴프론티어들을 위한 한마당 -

제7회 전국대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및 공모전

우리는 창의, 도전, 열정으로 21세기를 부팅한다! 인재를 개발하고 인재를 지원해온 멀티미디어의 뉴프론티어 현대전자가 일곱번째 마련하는 소프트웨어 대제전- 창의와 도전 열정으로 미래를 개척해갈 젊은 두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1 참가대상:대학(전문대포함) 및 대학원생 2 참가방법 개인

3 대회일정

구 분	일 자	문의처 및 대회장소	
신청서 교부 및 접수	6/3(월)~6/22(토)	S/W영업부, W/S영업부(서울) 지점 및 서비스센터(지방)	
지 역 대 회	7/2(화)	광주	현대자동차써비스빌딩
	7/3(수)	대구	그랜드호텔
	7/4(목)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7/5(금)	대전	EXPO과학공원
	7/16(수)	서울	롯데월드호텔(잠실)
본선대회 및 시상	8/21(수)	서울	롯데월드호텔(잠실)

4 출제내용
- 필기시험.컴퓨터 개론, 기초 S/W분야에 대한 지식
- 실기시험'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그램 작성

5. 사용환경.PC, Workstation

■소프트웨어 공모전

1. 참가대상.대학(전문대포함) 및 대학원생 2 참가방법.개인 또는 단체

3 대회일정

구 분	일 자	문의처 및 대회장소
신청서 교부 및 접수	6/3~6/22	S/W영업부, W/S영업부 지점 및 서비스센터(지방)
작품접수	7/8~7/27	
작품심사	7/29~8/14	
당선자 발표	8/16	
시상 및 심사	8/21	롯데월드호텔

4 심사방법:심사는 2차에 걸쳐서 하게되며, 개발의도 파악 및 충분한 평가를 위해 개발자의 직접설명에 의한 심사를 합니다
5 응모분야:PC 및 Workstation에서 운용 가능한 모든 S/W
6 저 작 권'개발자에게 귀속되며,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상내역 및 기타

구분	경진대회 개인부문 PC분야	경진대회 개인부문 W/S분야	경진대회 개인부문 장학금및 부상	경진대회 단체부문 팀수	경진대회 단체부문 장학금 및 부상	공모전 작품	공모전 장학금 및 부상
대상	1		장학금 200만원 컴덱스시찰 펜티엄PC	1	컴퓨터교실 (2천만원상당) ICPC참가지원	1	장학금 300만원, 컴덱스 시찰, 펜티엄PC
금상	1	1	장학금 100만원 컴덱스시찰 펜티엄PC	1	상장 및 상패	1	장학금 200만원, 컴덱스 시찰, 펜티엄PC
은상	1	1	컴덱스시찰 펜티엄PC	1	상장 및 상패	1	장학금 100만원, 컴덱스 시찰, 펜티엄PC
동상	2	1	펜티엄PC			2	컴덱스 시찰, 펜티엄PC
장려상	7	3	CD VISION2000			3	펜티엄PC
공로상	5		감사패 컴덱스 시찰	최다수 참여학과의 지도교수(지역별 1인, 경진대회 및 공모전 공통)			
행운상	5 5		전화기 카메라	대회 종료후 추첨에 의해 시상			

* 컴덱스시찰은 대표1인에 한함(팀일경우)

1 단체전은 지역대회 통과자 중에서 각 학교별 3인 1조로 구성된 팀중에서 종합성적에 의하여 심사
2 컴퓨터교실은 대상수상학과가 최근 2년이내에 설치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차상위 학과에 수여
3 단체전 대상팀.ICPC(세계 S/W경진대회)참가 지원

●소프트웨어 공모전 출품작은 상품화 추진시 관권보장 및 로얄티 지급
●입상자는 입사희망시 회사규정에 의거, 특혜를 드립니다 (현대전자, 현대정보기술)
●출제 및 심사:별도로 위촉하는 사계 권위자
●주 최:현대전자, 현대정보기술,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TV
●후 원: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협 찬:현대그룹

문의처 : 현대전자 소프트웨어영업부, W/S 영업부 TEL. 398-4582, 4363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66 현대빌딩 11층
부산지점 : 051)807-1232
대구지점 . 053)751-0304 광주지점 . 062)365-2005 대전지점 : 042)625-8722 울산지점 : 0522) 61-3381
강남서비스센터 . 02)501-1472 강서서비스센터 : 02)634-1472 용산서비스센터 . 02)719-1472 태릉서비스센터 : 02)979-1472
안양서비스센터 : 0343)88-1472 인천서비스센터 : 0032)874-1472 강릉서비스센터 : 0391)651-1472 원주서비스센터 : 0371)732-1472
은평서비스센터 : 02)353-1472 천안서비스센터 : 0417)555-1472 동대문서비스센터 02)929-1472 이천서비스센터 : 0336)637-1472
대구서비스센터 : 053)753-1472 대전서비스센터 : 042)672-1472 광주서비스센터 062)368-1472 창주서비스센터 : 0431)271-1472
울산서비스센터 . 0522)68-1472 포항서비스센터 : 0562)75-1472 안동서비스센터 . 0571)52-1472 마산서비스센터 . 0551)55-1472
사상서비스센터 : 051)316-1472 제주서비스센터 : 064)58-1472 전주서비스센터 : 0652)251-1472 순천서비스센터 : 0661)745-1472
성남서비스센터 : 0342)751-1472 부산서비스센터 : 051)804-1472 동울산서비스센터 0522)51-1472 서대구서비스센터 : 053)627-1472
서산서비스센터 : 0455)63-1472 목포서비스센터 : 0631)245-1472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HYUNDAI